

1994
2
성도의 벗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표지 설명:
세 명의 독일 젊은이들이 새로운 자유를 잘 활용하여 미국에서 선교사로 봉사하였다.
"기적적인 선교 사업",
12쪽 참조.

어린이란 표지 설명:
"친구 사귀기"에 실린 이탈리아 플로렌스 출신의 시몬 밀로, 어린이란 50쪽.
(사진 촬영:알프레드 더블류 워커)

일 반

대관장단 메시지 : 성도들에게 주는 권고의 말씀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	2
"어둠 속을 걸으며, 부른 찬송가" 마빈 케이 가드너	8
해롤드 비 리 : 주님의 화살통에 담긴 갈아 놓은 화살	
패트리아 켈리	18
사랑의 고리 호세 로베르토 알라르콘 나바레테	26
창조	32
구약전서를 좋아하게 되는 법을 배움 메리 헤이즌 존슨	41
아브라함의 성약 : 만인을 위한 축복 켄트 피 잭슨	42

청 소 년 란

기적적인 선교 사업 래리 에이 힐러	12
기적을 원함 아만다 매리오티	48

정 기 특 별 기 사

애독자 편지	1
방문 교육 메시지 : 신권의 축복에 온전히 참여함	25
교회 및 지역 소식	65

어 린 이 란

친구 사귀기 : 이탈리아 플로렌스의 시몬 밀로 디안 워커	50
친구가 친구에게 : 렉스 디 피네가 장로	52
이야기 : 몇 푼의 동전 레슬리 가르시아	54
심심풀이	57
함께 나누는 시간 : 평안 주디 에드워즈	58
어린 친구를 위하여 : 비오는 날 벤티 슐턴푸스	60
몰몬경 이야기 : 코리호어	62

성도의 벗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한국어판 출판물임. 본 잡지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월간 -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사모아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영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중국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프랑스어, 및 핀란드어.
격월간 - 인도네시아어, 타이어, 타히티어.
계간 - 이이슬란드어.

대관장단: 에즈라 테프트 벤슨, 고든 비 힐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십이사도 정회원: 하워드 더블류 헌터, 보이드 케이 파커, 마빈 제이 애쉬튼,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스 이 파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달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벨라드, 조셀 비 워스런, 리처드 지 스쿠트

교문: 렉스 디 피네가, 찰스 디디에이, 로버트 이 웰즈

통 권: 제335호, 제31권, 제2호

등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1994년 2월 1일(월간지)

발행인: 한 인 상

편집인: 한 상 익

발행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우체국 온라인 010041-0024704-11

은행 지로 번호 3001543

인쇄인: 영 인쇄 (주) 이 세 웅

© 1994년 재단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영어 승인 - 10/91, 번역 승인 - 10/91

February 1994 International Magazine의 번역본

Korean. 94982 320

성도의 벗 1년 구독료는 5,000원입니다. 권당 500원이며, 성도의 벗 해외 구독일 경우 항공 우편료는 1지역(일본 등) 12,000원, 2지역(필리핀, 중국 등) 16,200원, 3지역(중동 등) 23,200원, 4지역(중남미 등) 26,000원이며 우송료는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와드/지부의 변경된 주소를 배부 센터(☎ 738-6832, 청운동)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The SONGDO-UI POT(ISSN 1044-344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ah 84150. Second-clas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ubscription price \$9.00 a year, \$1.00 per single copies. Thir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When ordering a change,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changes cannot be made unless both the old address and the new ar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Church Magazines,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nited States of America Subscription information telephone number 801-240-2947.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ONGDO-UI POT at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nited States of America

영적인 힘을 얻음

리아호나(스페인어 판)에는 대관장단 메시지 외에, 영적인 경험을 통해 힘을 얻은 회원들이 쓴 실제 이야기도 들어 있습니다. 리아호나는 우리의 간증을 크게 키워 줍니다.

이 훌륭한 복음 소식을 널리 전하는 일에 종사하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여러분께 지지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호세 올리세스 벨레스 곤살레스 장로
멕시코 몬테레이 남선교부

지식과 진리를 갈구함

리아호나(스페인어 판) 잡지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저희 가족은 캐나다 회원들이 다니는 와드에서 유일하게 스페인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메말라 들어가는 식물이 비를 갈구 하듯이 이 스페인어 판 교회 잡지를 애 타게 기다립니다.

저는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와드 모임이나 활동에 항상 생각만큼 열심히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리아호나를 읽으면, 그 안에 들어 있는 메시지들이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총관리 역원들의 권고의 말씀은 물론 세상 곳곳에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의 간증도 제 영을 새롭게 해줍니다. 교회의 모든 회원들이 매달 이 교회 잡지를 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이 에르네스토 페리노
캐나다 온타리오 오셔와 스테이크
트렌턴 와드

성전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게 됨

레프와르(불어 판) 잡지에 대해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잡지는 제 삶에서 도움과 위안이 됩니다.

저는 스위스 성전 재헌납식에 참석하는 큰 축복을 받았습니. 대관장단과 그 밖에 총관리 역원들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참으로 좋았습니다. 그분들은 주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주님의 영을 강하게 느끼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감사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성전은 주님의 집이며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진실로 합당해져야 한다는 간증을 갖고 있습니다. 성전을 나서면서 저는 제 삶을 변화시켜 주님을 따르겠다는 열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전에 가면서 영적인 힘을 기대했는데, 결국 그것을 받았습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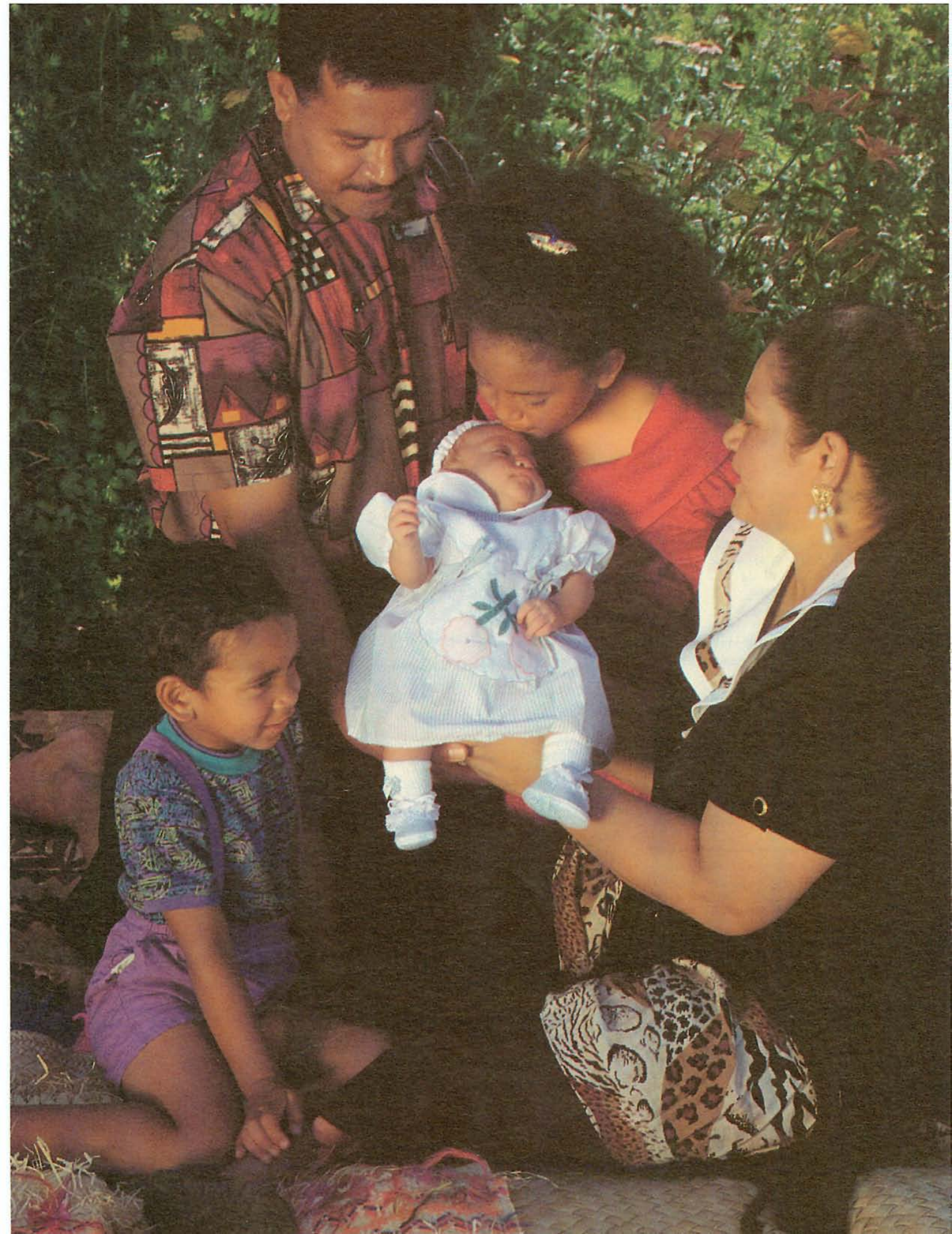
엘레인 들레스코
프랑스 낭시 스테이크
포르바 지부

선교사의 도구

저는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선교사들 가운데 속하게 되어서 행복합니다. 그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더욱 기쁩니다.

선교 사업을 하면서 리아호나(스페인어 판)는 제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리아호나에 실린 메시지는 사람들이 개심하고 침례를 받아 교회로 들어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리아호나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이 잡지 덕분에 저는 제가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호르헤 페리노
페루 아레키파 선교부



성도들에게 주는 권고의 말씀

에즈라 테프트 벤슨 대관장

제가 전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교회 단체로서 또한 개인으로서 하나님의 사업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권고의 말씀입니다.

첫째, 우리는 가족을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족은 문명의 초석이며 어떤 국가도 그 나라의 가정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가족은 교회의 반석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가정들에게 가족을 강화할 것을 권고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현명하고도 영원한 목적을 위해 결혼을 제정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가족은 의로운 생활의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자녀의 역할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아버지가 가정을 관리하도록 정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가족을 부양하고 사랑하며, 가르치고 인도해야 합니다. 어머니의 역할 또한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잉태하고 출산하고 양육하며 사랑하고 교육시켜야 합니다. 여성들은 남편의 내조자로서 남편과 상의해



결혼은 하나님께서
현명하고도 영원한
목적을 위해
제정하셨습니다.
가족은 의로운
생활의 기초가
됩니다.

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이성간에 불평등이 없습니다. 다만 책임상의 구분이 있을 따름입니다.

마찬가지로 경전에는 부모에 대한 자녀의 의무에 관한 권고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에베소서 6:1~3)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부모는 동반자 관계로서 사랑하고 단합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책임을 다하고 자녀는 사랑과 순종으로 부모를 대할 때, 큰 기쁨을 얻게 됩니다.

최근에 한 교회 회원이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과 문제점을 적은 편지를 보내 온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결혼했으나, 그 후 점차 비활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야 다시 교회 일에 활동적이 되었는데, 자녀들이 계속 충실하게 복음 생활을 하며 그들이 경험했고 다른 가족들도 겪는 것을 보았던 함정을 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관해 개인적인 조언을 구했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그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영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는가?”에 관해 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각자가 이 의미 심장한 질문에 관해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성공적인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단합하며, 서로에게 충실하고 또한 복음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수년간 사용해 온 검증된 공식에 관해 생각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성공적인 가족은 가족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해 주며, 자신이 사랑받고 인정받는다라는 것을 압니다.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안정감과 자신감을 갖습니다.

강한 유대로 맺어진 가족은 효과적인 의사 소통 방법을 개발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함께 계획을 세우며 공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협력합니다. 가정의 밤과 가족 회의는 이러한 목적을 위한 효과적인 도구로 활용됩니다. 강한 유대로 맺어진 가족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들과 가깝게 지냅니다. 그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공식적으로 각 자녀와 접견을 하는 아버지가 있는가 하면, 비공식적으로 접견을 하는 아버지도 있고, 규칙적으로 자녀들과 따로 시간을 갖는 아버지도 있습니다.

어느 가정이라도 문제점과 어려운 일은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적인 가족은 비판하고 다투기보다는 함께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그들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의논하며 격려해 줍니다. 때때로 이러한 가족들은 가족 중 어떤 한 사람을 위해 금식하기도 합니다.

성공적인 가족은 가족 활동, 공동 작업, 휴가, 오락, 가족 친목회 등의 일을 함께 합니다.

성공적인 부모는 악으로 오염된 환경 속에서 자녀를 기른다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가장 건전한 영향력을 제공하기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입니다. 도덕적인 원리를 가르치고, 양서를 구입해서 읽게 하며, 텔레비전 시청을 통제하고 영성을 높여 주는 훌륭한 음악을 들려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영적인 생각을 키우는 데 도움을 주는 수단으로 경전을 읽고 토론하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말일성도 가정에서는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회개와 침례, 그리고 성신의 은사를 이해하도록 가르칩니다.(교리와 성약 68:25 참조)

이러한 가정에서는 끊임없이 가족 기도가 행해집니다. 기도는 축복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힘과 생계와 도움을 위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성공적인 가족을 이루어 주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방법을 여러분에게 권해 드립니다.

저와 제 자매는 시온의 부모와 조부모 및 증조부모로



성공적인 가족은 가족 활동, 공동 작업, 휴가, 오락, 가족 친목회 등의 일을 함께 합니다. 그들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해 줍니다.

서, 우리 모두가 영원히 함께 살 수 있기를, 즉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합당하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해 왔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모든 가족을 위한 저의 간절한 소망이며 기도입니다.

우리에게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큰 영성이 요구됩니다. 영성을 키우는 방법은 경전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쁘게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권 지도자들에게 안식일에 가족이 함께 예배에 참석하고 가정에서 함께 하는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해 역원회를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그 시간을 이용하여 모임에 참석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봉사를 하며, 가족을 방문하고, 가정의 밤을 갖고, 경전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교회의 부름을 받아들이고 부름받은 직책에서 충실히 봉사할 것을 권고합니다. 서로 봉사하십시오. 여러분의 부름을 충실히 수행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게 되고 자신의 영성을 키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과 궁핍한 이웃에게 관심을 기울이실 것을 권고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는 과부와 고아를 돌볼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야고보서 1:27)

우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을 권고드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여러분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섬기”(교리와 성약 59:5)시기를 바랍니다.

만사가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음을 고백하십시오.(교리와 성약 59:21 참조)

“환난중에 인내”(교리와 성약 24:8) 하십시오.

“기운을 내”(교리와 성약 61:36)하십시오.

가정과 교회에서 신권을 지지하십시오.(교리와 성약

107:22 참조)

정직한 십일조와 후한 금식 헌금을 내십시오.(교리와 성약 119:4, 모사이야서 4:21 참조)

이웃을 여러분 자신과 같이 사랑하십시오.(교리와 성약 59:6 참조)

자녀를 가르치고, 빛과 진리 가운데에서 양육하십시오.(교리와 성약 93:40, 42~43 참조)

“서로의 결점 찾기를”(교리와 성약 88:124) 그치십시오.

“서로 용서”(교리와 성약 64:9) 하십시오.

절약하고 빛을 지지 마십시오.(교리와 성약 19:35)

탐내지 마십시오.(교리와 성약 88:123 참조)

다른 사람과의 거래에서 정직하십시오.(교리와 성약 51:9 참조)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지키십시오.(교리와 성약 59:10, 12~13 참조)

술이나 담배 뜨거운 음료의 사용을 금하십시오.(교리와 성약 89:5~9 참조)

“부정을 금”하고 외설물을 멀리 하십시오.(교리와 성약 88:124)

가장 좋은 책에서 학문을 구하십시오.(교리와 성약 88:118 참조) 악을 선으로, 선을 악으로 묘사하는 문학 작품이나 영화를 피하십시오.

간음하지 말고 “이와 비슷한 어떠한 일도 하지 [마십시오]”(교리와 성약 59:6) 이것은 애무, 사통, 동성애 및 기타 부도덕한 모든 형태의 행위를 뜻합니다.

“취지 말고 덕으로써 [여러분의] 생각을 장식”(교리와 성약 121:45) 하십시오.

계속해서 “덕을 쌓으며... 거룩”(교리와 성약 38:24) 하십시오.

“사랑의 끈으로 몸을 둘러 싸”(교리와 성약 88:125) 하십시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 가십시오.(교리와 성약 98:11 참조)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의 간증을 담대히 전하십시오.(교리와 성약 76:51, 79 참조)

여러분의 성약을 존중하십시오.(교리와 성약 25:13

참조)

끝까지 견디십시오.(교리와 성약 14:7 참조)

한 마디로 말씀드려, 세상에 살되 세상에 속하지 마십시오.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고, 성도를 온전케 하며, 죽은 자를 구속함으로써 인간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께서 재능과 재물을 바쳐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일을 도우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이 일은 주님의 사업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며, 오늘날 자신의 뜻을 그분의 종들에게 전하신다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즉 이 지상의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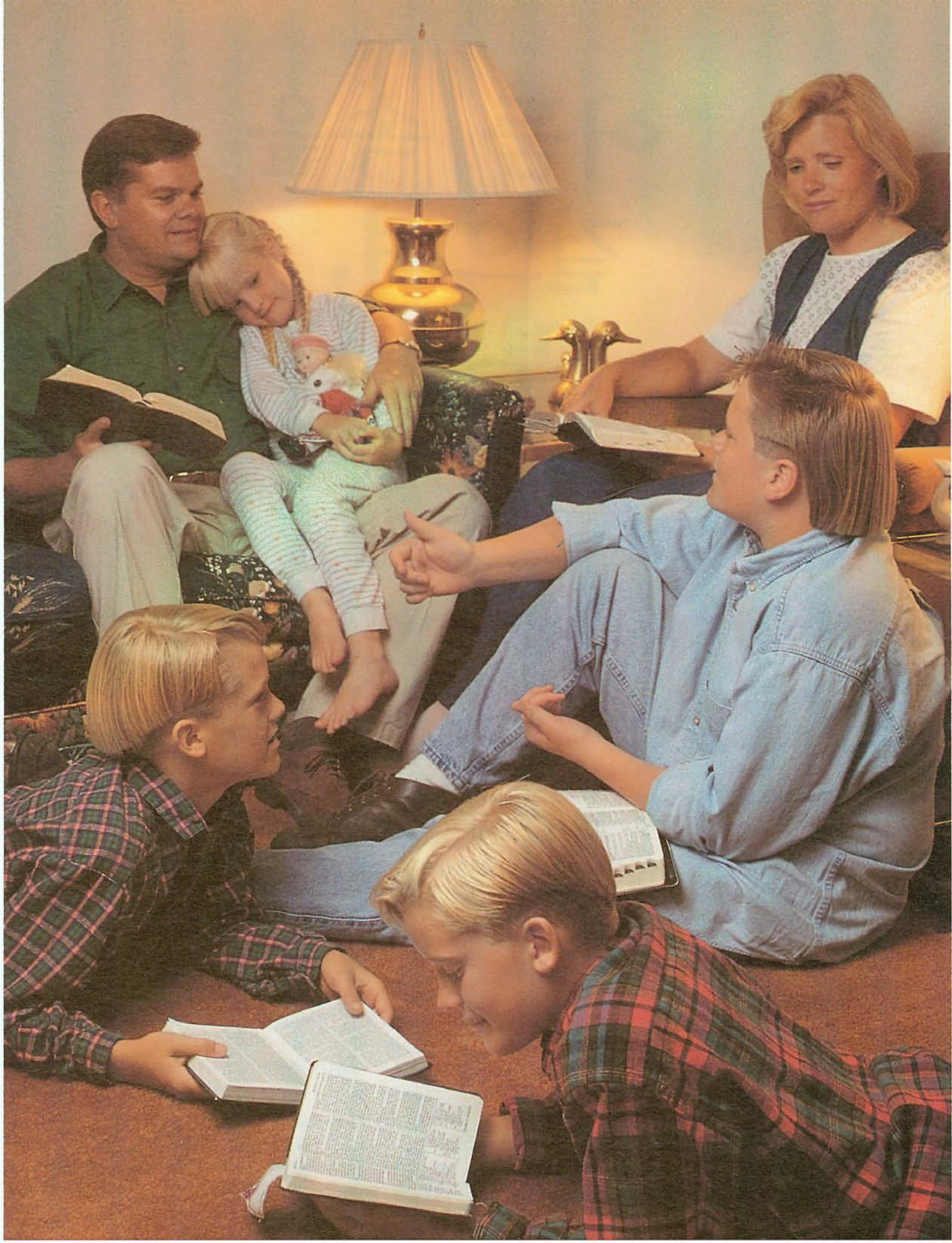
말일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께 찬사를 보냅니다. 여러분의 충실함에 찬사를 보냅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큰 축복과 기회가 주어졌던 때는 결코 없었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위대한 대업을 향하여 나아가지 아니하려느냐? 전진하여 물러서지 말며, 용기를 내라... 나아가고 또 나아가서 승리를 쟁취하자.”(교리와 성약 128:22) □

(에즈라 테프트 벤슨 대관장이 1984년 4월 7일 연차 대회에서 하신 말씀에서 발췌함.)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벤슨 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이 권고하셨습니다.

1. 가족을 강화시키십시오. 가족은 교회의 반석이며, 의로운 생활의 기초가 됩니다.
2. 경전을 공부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큰 영성이 필요합니다. 영성을 키우는 방법은 경전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쁘게 취하는 것입니다.
3. 교회의 부름을 받아들이고 충실히 봉사하십시오.
4. 가난하고 병들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5. 계명을 지키십시오.



“어둠 속을 걸으며, 부른 찬송가”

마빈 케이 가드너

파라과이에 사는 파우스토 토랄레스는 동생이 아프다는 전갈을 받자 큰 희생이 요구되는 먼 여행길임에도 불구하고 동생을 방문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파우스토는 그것이 엄청나게 큰 희생을 요구하고 또 자신과 가족의 생활을 바꾸어 놓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않은 채로 여행을 떠났다.

가장 가까운 도시인 나탈리오 디에즈까지는 대중 교통 수단이 없었다. 그래서 파우스토는 아내와 아이들을 자신의 작은 농장에 남겨 두고 혼자 길을 떠나 한 시간 이상을 걸어 그곳에 도착하여 다시 그곳에서 두 시간 넘게 버스를 타고 엔카나시온에 당도한 뒤 몸져 누워 있는 동생을 방문하였다. 그날 밤, 그는 여관에서 그곳에 하숙하고 있던 두 젊은이를 만나 난생 처음으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대해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우리는 여러 다른 종교를 접해 보았지만 별로 마음에 내키는 것이 없었습니다.”라고 그의 아내 펠리시타는 말한다. “그러나 남편은 이번에는 예전에 들었던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는 그 두 젊은이에게 자신이 세 달 후에 가족과 함께 돌아와 침례를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들은 메시지의 영으로 가득 찬 파우스토는 그의 농장으로 돌아와 그 메시지를 가족과 함께 나누었다. 약속한 대로 세 달 후에 파우스토와 펠리시타는 자녀들과 함께 침례받을 준비를 하고 엔카나시온으로 가서 곧바로 예전의 여관으로 향했다. 그날 선교사들은 파우스토 가족에게 토론을 가르치고 물문경과 복음 원리를 주었으며, 다음날인 1981년 5월 12일 침례받을 연령에 이른 다섯 자녀들과 토랄레스 부부는 침례를 받았다. 그리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교훈을 다시 찾음

일 년 후에 세이사르가 여덟 살이 되자 “우리는 세이사르가 침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복음 원리를 읽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이를 데리고 엔카나시온으로 갔습니다.”라고 펠리시타는 말한다. 그러나 그들이 일 년 전에 침례받은 곳에 도착하여 집회소로 사용되었던 임대 건물에 교회가 없는 것을 보고는 큰 충격을 받았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엔카나시온에 있는 교회라고 쓰여진 건물이란 건물은 모두다 찾아가 보았습니다만 그 교회

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을 그렇게 헤매다가 결국은 찾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교회와 접촉이 끊어지기는 하였으나 이로 인해 복음에 대한 그들의 간증이 식은 것은 아니었다. 계속해서 경전을 공부하고 가족 예배를 가졌다. 일년 후에 토랄레스 부부는 이번에는 교회를 찾아 아들에게 침례를 줄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굳게 가지고 세이사르를 데리고 다시 엔카나시온으로 갔다.

그곳에 도착은 하였으나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였다. “그때 우리는 마차를 끌고 가는 우유 배달원을 보았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한다. “남편은 아마도 그 우유 배달원이 도시 전체에 우유를 배달하기 때문에 그가 교회 회원을 만날 수 있는 곳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우유 배달원은 모르겠다고 하면서 다른 동료 배달원을 불러 물어 보았는데 그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시려고요?’ 하고 물어 보고는, 그는 마차로 우리를 그곳까지 태워다 주었습니다.”

토랄레스 가족은 지부가 전에 있던 작은 건물에서 큰 새 건물로 이전하였다는 것을 알았다. 마침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회원들이 성찬식에 참석하고 있었다. 기쁨에

넘친 토랄레스 부부와 세이사르는 많은 회원들을 만나고 처음으로 교회 모임에 참석할 수가 있었다. “지부장이 네 달 후에 그곳에서 지방부 대회가 열린다며 그때에 다시 오면 우리가 세이사르에게 침례를 줄 수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네 달 후에 온 가족이 엔카나시온으로 가서 대회에 참석하고 사살이 침례받는 것을 지켜 보았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 이후로 선교사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자주 토랄레스 가족을 방문하였으며, 토랄레스 가족은 또 이웃과 복음을 나누어 이들 중 일부가 침례를 받았다. 1986년 드디어 먼 거리와 그간의 희생을 감안하여 토랄레스 형제를 지부장으로 하여 그의 집에 지부가 개설되었다.

일요일마다 토랄레스 형제의 작은 집에 있는 두 방 사이의 공간에 의자를 펴고 연단을 설치하여 예배당으로 사용하였다. 성찬을 축복하고 회원들에게 전달하였다. 그리고 주일학교 공과는 나무 아래나 꽃이 있는 정원 옆에서 가졌다.



파우스토 토랄레스(오른쪽)와
펠리시타 토랄레스. “비록 우리
주위에 전쟁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가까운 곳에 있다면 그것들을 이겨
낼 수가 있습니다.”라고 토랄레스
지부장은 말한다.

펠리시타 자매는 이렇게 말한다. “여기서 모임을 갖는 것이 정말 행복합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영이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라고 토랄레스 지부장은 말한다.

매주 이틀씩 저녁 시간에 토랄레스 가족은 이웃을 방문하여 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친다. 스물 두 살된 주물라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먼 거리를 걸어 이들을 방문하여 많은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들은 모두 우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침례는 인근에 있는 강에서 행해진다.

스물 다섯 살된 테레사는 우루과이에서 선교사로 봉사하였으며, 스물 세 살의 마리아와 열 아홉 살의 프란시스코는 현재 아르헨티나에서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다. “그렇지만 집이 가난하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이 한꺼번에 선교사로 나갈 수는 없어요.”라고 토랄레스 자매는 웃으며 말한다.

가족 모두가 그들의 작은 농장에서 함께 일하여 벌어들인 수입에서 십일조를 낸다. “우리는 모두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일하기 전에 경전을 읽습니다.”라고 주물라는 말한다. “그리고 정오가 되면 점심을 먹고 다시 경전을 읽으며 저녁에는 개인적으로 복음을 공부합니다.” 집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달빛 아래서 또는 석유등을 이용하여 가정의 밤을 갖는다.

“희생은 하늘 축복을 가져 오나니”

1989년 8월에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이들의 살아 있는(열 두 명의 자녀 중 한 명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11명의 자녀들과 장녀의 남편과 자녀들을 포함하여 포함 19명의 식구들이 함께 성전을 방문하였다. “우리는 새벽 1시에 집을 출발하였습니다. 동이 뜨기 전이라 밤이 칠흑같이 어두웠고 게다가 비까지 내려 길은 진흙투성이였습니다. 신발과 가방과 어린 아이들을 업고 맨발로 걸어 마을까지 갔는데 비로 온몸이 젖었습니다. 어둠 속을 걸으면서 우리는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우리는 그때 ‘희생은 하늘 축복 가져 오나니’(찬송가, 1989년, 18장, 4절 참조)라는 찬송가를 불렀습니다.”하고 주물라는 말한다.

그 마을부터는 버스를 여러 차례 갈아타고 가며 도중에 교회의 다른 회원들과 합류하여 마침내 다음날 아침 6시에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 성전에 도착하였다. 장장 29시간이나 걸린 여행이었다.

“우리는 성전으로 들어가 엔다우먼트와 가족 인봉을 받았습니다. 성전은 정말 영적이고 아름다운 장소입니다. 정말 이곳이 주님의 집이라는 것을 영이 증거하였습니다.”라고 토랄레스 자매는 말한다. 그들의 죽은 딸도 그들에게 인봉되었으며, 장녀와 그녀의 남편과 아이들도 가족 인봉을 받았다. 모든 일정을 마친 후에 그들은 아쉽지만 성전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돌아오는 길에 그들은 엔카나시온에 들러 그곳 지부 회원들과 함께 교회 모임에 참석하였다. 그리고 나서 여행의 마지막 한 시간 반 동안 그들은 다시 신발과 가방과 아이들을 들고 업고 진흙탕 길을 걸었다. “걸으면서 우리는 기뻐서 성전에 갈 때보다 더 크게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휩쓸어’(찬송가, 1989년 142장 참조) 라는 찬송가를 불렀습니다.”라고 토랄레스 자매는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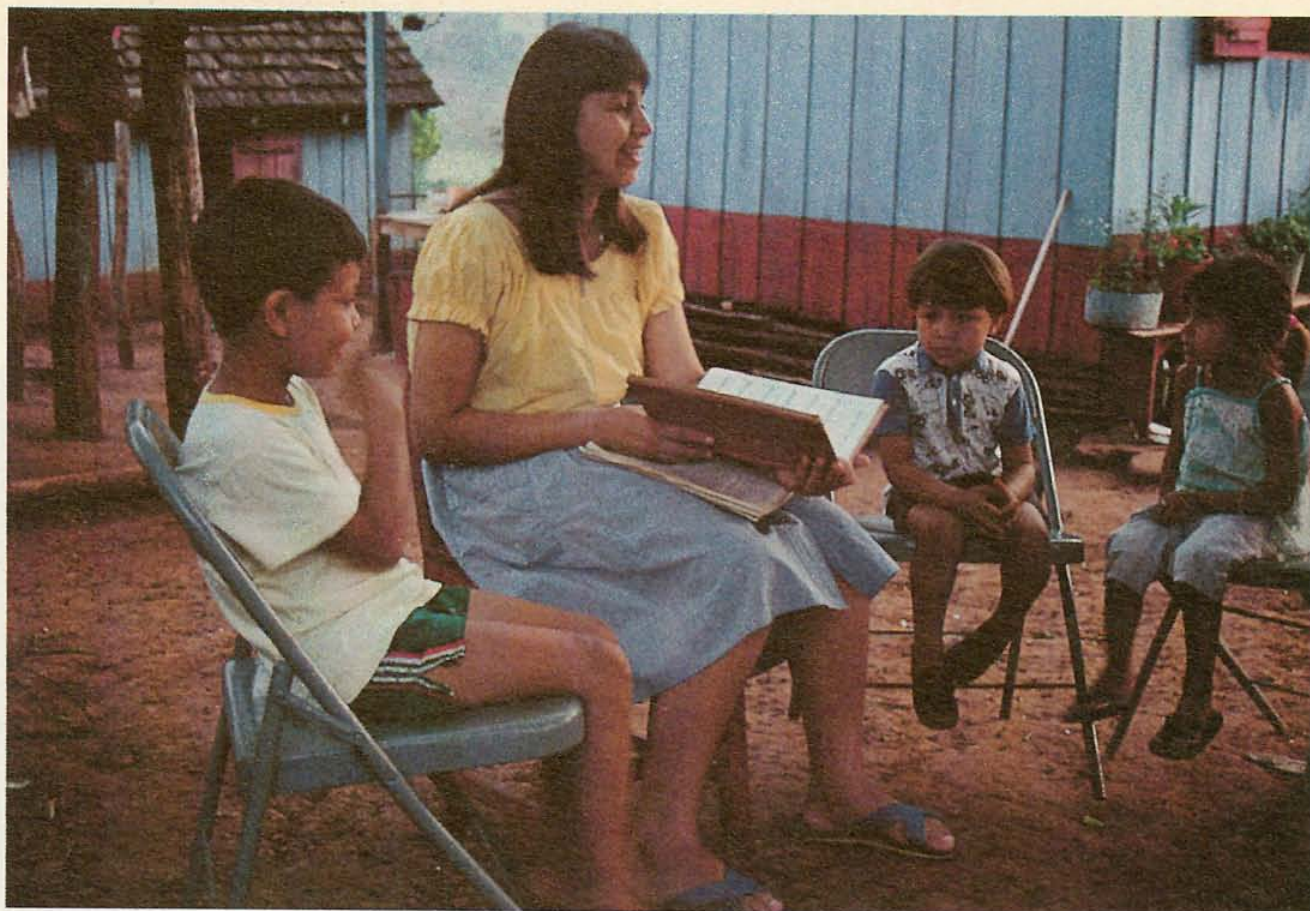
토랄레스 지부장도 진심으로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정말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빛과 평화”

하루의 일과와 저녁 식사가 끝난 늦은 저녁에 태양이 언덕 너머로 숨어 버리면 토랄레스 가족은 종종 집앞 나무 아래 놓여 있는 낡은 나무 탁자 주위에 모여 앉아, 한 사람씩 돌아가며 주님의 사랑에 대해 간증을 한다.

한밤에 시골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와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그들은 부드럽게 이야기를 한다. 마침 비가 내리려고 하는지 강가에 있던 개구리와 귀뚜라미들의 울음 소리가 그치지 않으며, 바람이 머리 위에 있는 나뭇잎을 가볍게 스치고 지나간다.

어둠이 마치 따뜻한 이불처럼 고요와 안전과 평화의 영을 가지고 내리 덮인다. 잠시 후에 딸아이 하나가 살그머니 집 안으로 들어가 등을 가지고 와서 불을 밝힌다. 탁자 주위의 얼굴들이 반짝반짝 빛난다. 집과 나무와 마당이 어둠 속으로 사라져 보이지 않는다. 가족들을 제외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라져 버린 듯하다. 머리



주물라가 토랄레스 형제 집 밖에서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여기서 모임을 갖는 것이 정말 행복합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그녀의 어머니는 말한다.

위에서는 별들이 반짝이기 시작한다.

토랄레스 형제가 조용한 목소리로 간증을 한다. 그는 사랑하는 구세주와, 예언자 요셉 스미스, 그리고 살아 계신 예언자와 성신의 은사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는 예전에 이와 같이 어둠이 깔린 저녁에 경험했던 일을 가족들에게 들려 준다.

어느 날 저녁, 토랄레스 형제와 자녀 몇 명이 이웃들에게 복음을 가르친 후 집을 향해 시골길을 걷고 있었다. 달빛과 별빛만이 비치는 가운데 길을 걸으면서 그들은 태버네클 합창단의 녹음 테이프를 듣고 있었다.

"그 순간 저는 시현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저는 주님이라고 생각되는 분을 보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커다란 전쟁터 속을 걷고 있었는데 사람들

이 모두 우리 주위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자 우리는 싸움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전쟁터 한가운데로 해를 입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굉장히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때 제 마음은 빛과 화평과 형용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면전에 설 때 갖게 되는 느낌이라고 생각했습니다."라고 토랄레스 형제는 말한다.

이러한 일들을 보고난 후, 토랄레스 지부장은 여전히 자녀들과 함께 달빛 아래서 길을 걷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아이들이 아버지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기에 그는 자초 지종을 이야기 하여 주었다. 그 이후로 이 경험은 토랄레스 가족에게 커다란 희망의 근원이 되었다.

"저는 그것이 우리 생활과 미래에 있을 일을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 주위에 전쟁과 문제가 있을 지라도,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가까운 곳에 있다면 그것들을 이겨 내고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토랄레스 지부장은 말한다. □

기적적인 선교 사업

래리 에이 힐러



사진 촬영: 리처드 톨슨, 존 부크, 앨빈 미오 및 글렌

마이클과 피터와 마티아스는 레만 집안의 형제들
로, 이제까지 그들은 탈
출을 시도하는 사람들을 저격하려는
보초들이 지키는 철조망과 콘크리트
벽 너머에서 살아왔다. 그것은 출옥
이라는 희망도 없이 사는 무기 징역
수와 다름없는 생활이었다.

그럼 그들이 엄청난 비밀 감옥에
갇힌 수감자들이었을까? 천만의 말
씀. 레만 가족은 활동적인 말일성도
로 동독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굳이
죄라면 죄인 사람들이다. 이러한 상
황은 훗날 철조망 안에서 태어나게
될 레만 집안의 후손들에게도 마찬
가지인 것처럼 보였다.

그러다가 1989년 11월에 갑자기
동독 정부가 붕괴되었다. 감시탑도
힘없이 무너졌다. 그리고 동과 서를
갈라 놓았던 베를린 장벽이 망치
세례를 받아 수만 조각으로 산산
조각이 났다.

많은 동독인들이 서독의 상점으로
몰려가 상품으로 그들의 가방을
채우는 동안 피터와 마티아스, 그리
고 마이클은 급히 선교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냈다.

철의 장막 안에서 성장함

이 젊은이들의 부모인 루돌프 레
만과 루스 레만은 1961년 그 악명
높은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기 수개
월 전에 교회에 들어왔다. 그들은
가족 수가 적고 무신론이 공식 종교
인 이 나라에서 일곱 명의 아들을
말일성도로 키웠다.

다른 동독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레만 부부도 여행 허용 지역과 금지
지역, 입학 허용 학교, 가질 수 없는
직업, 그리고 어떤 것을 읽거나 말

할 수 없는지에 대한 지시를 받았
다. 그들은 가정에서 종교 의식을
행하거나 또는 조그만 지부에서 모
임을 가질 수는 있었으나 때때로 정
부 요원들이 모임에 참석하기도 하
였다. 또 경전을 소지할 수는 있으
나 다른 교회 서적의 반입은 국경에
서 제지를 받았다. 전도가 금지되고
선교사로 봉사하는 것 또한 불가능
하게 되었다. 충실한 말일성도로서
성장하는 것이 그곳에서는 정말 하
나의 시험대였다.

피터 레만은 학교에서 국민 윤리
시간에 놀림감이 되었던 일들을 기
억하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그가
몰몬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사실 그들은 아마
제 자신보다도 제 생활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저희들은
항상 다른 사람의 주목을 받고 있습
니다. 정부 기관에 있는 우리 가족
에 관한 모든 기록에 붉은 점이 찍
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몰몬
교회에 다니고 있고 아들이 일곱이
나 되었으며, 좀 특별한 가족이었으
니까요."

마이클은 이렇게 회상한다. "제가
성장하는 동안 부모님께서서는 제가
어느 특별한 주제에 대해서는 공공
연하게 이야기를 못하도록 하시려고
애쓰셨습니다. 부모님은 혹시 옆에
도청기나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장
착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
기 때문에 항상 말조심을 해야 한다
고 가르치셨습니다. 누가 믿어도 좋
을 사람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었습
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교회에
서 완전히 멀어지거나 아니면 더욱
더 충실하여졌으며, 성도들끼리는
더욱 더 단합하였다. 교회는 주위 환



왼쪽, 선교 사업을 떠나기 전에
교회 앞에서의 마티아스와 마이클,
그리고 피터. 위쪽, 이제는 역사의
유물이 된 베를린 장벽에서의
마티아스와 아버지.



경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더욱 커가는 곳이었다. 결국은 이곳에서도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신앙이 기적을 낳았다.

간증의 기적

대부분의 기적들이 조용하게 일어났다. 십일조를 내고 지혜의 말씀에 따라 살 때 오는 병고침과 축복이 바로 기적이었으며, 이러한 사회에서 간증을 키우고 지키는 것 또한 기적이었다.

마이클: “학교에 다니기 시작할 무렵, 부모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에 관해 말씀해 주었기 때문에 사실 학교에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모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게 주입시키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피터: “학교에서 국민 윤리 시간에 우리는 무신론이 공식적인 종교 정책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들은 수업 시간에 종교를 논려했으며, 만일 종교 조직에 속한다면 정부에

다.”라고 피터는 회상한다. “부모님께서 바라시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저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선생님들은 저를 항상 곤경에 빠뜨렸으며,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부정하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어쩌서 우리는 이처럼 곤란한 일들을 당해야 하는거지? 무엇인가 이유가 있을 거야.’ 저는 무릎을 꿇고 ‘저는 저의 힘으로 알고 싶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느끼고 싶습니다.’ 하고 간구했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몰몬경을 공부하였으며 바로 그 당시에 작기는 하지만 간증을 얻었으며, 그 뒤로 그 간증이 점점 커졌습니다.”

기적적으로 성전이 세워짐

간증을 얻은 것 자체가 하나의 주요한 과정이다. 그러나 만일 어떤 것이 참되고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나 그 일을 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일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면,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배웠지만 성전을 방문할 수 없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도 여러분은 레만가의 사람들과 다른 동독 성도들이 했던 것처럼, 미래에 언젠가 성전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당한 생활을 할 것이다. 물론 그것이 정말 시간적으로 머나먼 길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이 받은 축복은 충실한 회원들도 놀랄 수 있는 것이었다. 동독 정부가 1982년에 교회가 성전을 건축하도록 승인을 한다는 발표를 하자 회원들은 감사한 마음



프라이베르그 성전(맨 위쪽)이 독일 민주 공화국에 세워졌을 때, 레만 가족은 성전 앞에 서서 기쁨에 넘쳐 울었다. 그들은 언젠가 자신들 또한 솔트레이크 성전 앞에 설 수 있으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왼쪽 및 위쪽).

반기를 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소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바로 정부가 예배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부모들은 사회가 종종 정반대의 것을 가르칠 때가 있다고 가르쳤다. 다른 곳의 말일성도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레만가의 형제들도 스스로 답을 찾으려 노력하였다. “우리에게는 정말로 좋은 가정이 있었습니





레만가의 형제들은 서로 다른 선교부에서 선교 사업을 했다. 마티아스(왼쪽)는 아이다호에서, 마이클(오른쪽)은 테네서에서, 그리고 피터(맨 오른쪽)는 콜로라도에서 선교사로



봉사했다. 그들은 자유롭게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그보다 더욱 큰 자유의 소식을 전하고 명예롭게 선교 사업을 마쳤으며, 이때 부모님인 루돌프와 루스가

독일에서 미국으로 날아와 아들들과 함께 콜로라도의 그랜드 정션에서 재회의 시간을 가졌다. 이제 그들은 돌아와 신앙이 숨쉬는 삶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 들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세상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마이클은 한 마디로 말한다.

레만가의 형제들은 아버지와 함께 한창 건축 중이던 성전을 보러 갔던 것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어느 날 저녁 일이 끝나자 그들은 회사를 급히 빠져 나와 고물 자전거를 타고 시골의 언덕길을 사십 킬로미터나 달렸다. 성전 부지에 도착하자 그들은 길 건너편에 서서 하루하루 높아 가는 성전벽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들은 눈물을 흘렸다.

약속된 축복

연령 순으로 장남부터 네 아들은 교회에서 성장하여 이제는 직업을 갖고 결혼도 하였으나 실제로 선교 사업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없었다. 나머지 세 아들도 형들과 같은 길을 갈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세 아들 중 나이가 가장 많은 마이클은 이렇게 말한다. “교회에서 모든 사람이 선교 사업을 위한 저축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우리에게 높은 장벽이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 가운데 아무도 우리가 선교사로 나갈 수 있으리라고는 믿지 않았습니다.”

마티아스는 또 이렇게 말한다. “부모님께서서는 제게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 저축을 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말씀에 따르면서도 제가 선교사로 나갈 수 있으리라고는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축복사의 축복에는 그가 선교사로 봉사할 것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으나, 마티아스는 이것이 먼 훗날 노년에야 이루어질 일

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성전 헌납 이전에 있었던 공개 전시회에서 스테이크 선교사로 봉사하였을 때, 마티아스는 아마도 그 축복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막내 아들 피터는 형들이 모르고 있던 한 가지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터는 성전 헌납 후인 1986년에 축복사의 축복을 받았다. 그는 폴란드와의 국경 근처에 있는 작은 마을로 가서 다 허물어져 가는 임대 건물에 있는 작은 지부에 참석하여 정말 풍성한 영을 느꼈으며, 모임이 끝난 후 축복사의 집으로 갔던 일에 관해 이야기했다.

“축복사님은 제가 복음 선교사로 나갈 것이며,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다른 나라에서 봉사할 것이며 그것이 젊은 시절에 일어날 것이라는 축복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만 울고 말았습니다. 저는 제가 그 순간에 주님께 굉장히 가까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매일 밤 저의 축복문을 읽고 또 읽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선교 사업을 위해 저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꿈이 곧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피터는 자신이 어디서 봉사할 것인지 알지 못했다.(그는 자신이 러시아어를 상당히 잘 하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자신의 축복에 대해 부모님께 이야기하였으나 형들에게는 그렇게 하질 않았다. “저는 가족 중에서도 조금은 색다른 사람입니다. 저는 항상 ‘우리는 선교사로 나갈 수 있어. 정말 선교 사업을 나가는 것은 놀라운 일이 될거야’라고 말했습니다. 마티아스 형은 제 말에 회의적이었지만 저는 축복사의 축복을 받았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터 또한 그 일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지는 알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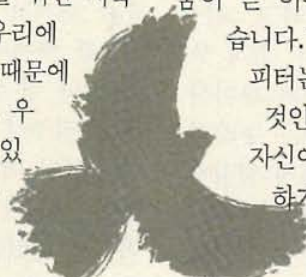
기적의 선교 사업

그 후 오래지 않아 그 밋던 여러 제한 사항이 완화되어 동독 정부는 50년 만에 처음으로 소수의 복음 선교사를 동독으로 들어오도록 승인을 하였으며, 동시에 소수의 동독 출신 선교사들이 외국으로 나가 다른 나라에서 봉사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여러 가지 이유로 레만가의 형제들은 그 선교사들에 포함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드디어 전세계의 텔레비전 화면에 되풀이하여 방영되었던 그 11월의 사건이 일어났다. 동베를린 시민들이 망치와 쇠파대기를 가지고 장벽 위에 앉아 이미 신앙과 기도에 의해 그 하루 기반이 침식당한 장벽을 산산 조각 내버렸다.

피터는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선교사 추천서를 제출하였다. 곧 이어 마티아스와 마이클도 동생을 따랐다. 세 사람 모두 미국으로 부름을 받았으며 마이클은 테네시의 내쉬빌 선교부에서, 마티아스는 아이다호의 보이즈 선교부에서, 그리고 피터는 콜로라도 덴버 선교부에서 봉사하였다.

그들은 모두 자유롭게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다른 사람들이 또 다른 종류의 벽을 허물어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다. 개심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활을 변화시켜 그를 영적으로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레만가의 사람들에게 물어 보면 이러한 것이 가장 큰 자유라는 것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



해롤드 비 리

주님의 화살통에 담긴 갈아 놓은 화살

패트리아 켈리



해롤드 비 리 대관장은 말 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대관장으로 지지를 받은 후 첫번째로 한 말씀에서 요셉 스미스의 다음 말씀을 인용하였다. “때때로 저는 높은 산에서 굴러 내리는 동안 부딪히고 깨지면서 곱게 갈리는 거치른 돌과 같다는 말을 듣기는 하지만, 경험을 통해 그러한 것들을 이겨 내고 정말 전능하신 분의 화살통에 담긴 갈아 놓은 화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살아오면서 겪은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고 저에게 유익이 되는 경험을 하고 또한 제가 필멸의 세상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인지를 알아야 했던 것 같습니다.”

해롤드 비 리 대관장의 그러한 연단의 과정은 어릴 적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1899년 3월 28일 아이 다호주의 클립톤에 있는 가난한 농

부의 집에서 태어났다. “정말 우리 집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라고 그는 자신의 가정을 표현하였다. 그의 부모님인 사무엘 매리온 리와 루이사 빙햄 리는 물질적인 부는 누리지 못했지만, 여섯 자녀들에게 열심히 일하는 것의 중요성과 복음 진리에 대해 가르쳤다. 가족들은 모두 매일 해가 뜨기 전에 시작하여 어두워질 때까지 농장 일을 하였다.

영의 가르침을 들음

해롤드는 일찌기 영의 인도를 받는 것을 알아 이에 귀기울였다. 해롤드가 이제 막 걸음마를 하는 아기였을 때인 어느 날, 가족들이 현관문을 열어 놓은 채로 문 가까이에 앉아서 심한 번개가 치는 것을 보고

있었다. 어린 해롤드가 “현관문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며 놀고 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아무 말도 없이 저를 세계 떠밀어 저는 현관문 바깥쪽으로 벌렁 나가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번개가 굴뚝을 타고 부엌 벽난로를 빠져나와 열려 있는 부엌문을 지나 집 앞에 있던 커다란 나무를 뿌리부터 위끝까지 갈라놓습니다.” 만일 어머니의 직관에 따른 재빠른 행동이 아니었다면 해롤드는 아마도 죽었을 것이다. 이 밖에 다른 경우에도 그의 어머니는 이와 비슷한 영감의 축복을 받아 여러 차례 그의 생명을 구하였다.

다 허물어져 가는 헛간에 어린 해롤드는 호기심을 가졌다. 그러나 그는 보이지 않는 누군가로부터 그곳에 들어가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다.



어린 시절에 경험하였던 한 영적인 인도를 통해 해롤드는 순종이라는 길을 굳게 걸어갈 수가 있었다. “여덟 살쯤 되었을 때 아버지께서 저를 멀리 떨어진 한 농장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동안에 저는 남자 아이들이 흔히 그렇듯이 이것저것을 하며 분주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 담장 너머에 다 허물어져 가는 헛간이 하나 있었는데 저는 그곳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때에 저에게 중요한 것을 이야기해 주는 목소리를 들었는데 ‘해롤드야, 그곳에 가지 말아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누가 제 이름을 부르는가를 보려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들판의 저쪽 끝에 계셨기에 제가 그곳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그곳에 가지 말라고 저에게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그곳에 무엇이 있었는가를 알 수 없었지만, 저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 말을 건넬 수도 있다는 것을 어린 시절에 배웠습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

해롤드는 굉장히 영특한 소년이었다. 읽고 쓰기를 일찍 깨우쳐 다른 아이들보다 일 년 일찍 학교에 입학할 수가 있었다. 그러면서도 학교 제도에 잘 적응을 하여 농구팀과 연주부, 그리고 토론회 및 그 밖의 활동에 참여하였다. 열 일곱 살에 이르러서는 열심히 일하고 공부한 덕

에 학교 교사가 되는 데 필요한 시험에 합격하여, 고향에서 15킬로미터 밖에 떨어지지 않은 아이다호주 실버스타에 소재한 교실이 하나밖에 없는 조그마한 학교의 교사겸 교장으로 첫발령을 받았으며 이듬해에는 보다 큰 학교의 교장이 되었다. 교사 경력 사 년째가 되던 21세에 그는 미국 서부 선교부에서 선교사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았다. 임지로 떠날 때 그가 속한 와드의 감독이었던 그의 아버지는 “내 아들 해롤드야, 이 아버지와 엄마는 네가 큰 일을 하리라고 굳게 믿고 있단다.”라고 말하며 그를 격려하여 주었다.

이 아이다호의 조그마한 시골에서 온 젊은 청년에게 덴버라는 커다란 도시 생활은 큰 변화였지만 해롤드는 자신이 가정에서 배운 정신적인 교훈 곧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떠한 일을 이루시려면 내가 일을 열심히 해야 한다.”는 교훈을 빨리 선교 사업에 적용하였다. 그는 뛰어난 선교사였으며 이 년 동안 많은 책임을 수행하였다. 해임된 후에 그는 교사로서 발령을 받아 솔트레이크로 이사를 하였으며 그곳에서 선교사 시절 먼 발치에서 보고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총명하고 아름다운 편 루신다 태너라는 아가씨에게 구애를 하였다. 약 1년 후, 그들은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결혼을 하였다.

사랑이 많은 지도자요 아버지

경제 대공황이 휩쓸던 시기에 해롤드는 31세의 나이로 파이오니어 스테이크 부장이 되었다. 당시에 스

테이크 회원의 반 이상이 실직 상태에 있었다. 주님께 영감을 구하고 보좌들과 감독들의 도움을 받아 리스테이크 부장은 스테이크 회원들에게 도움을 줄 계획을 수립하였다. 창고 건물을 기증받아 잉여 물자를 그곳에 수집하였다. 그리고 농부들과 추수할 때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농산물로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으며 상호부조회 자매들은 통조림을 만들어 식품을 저장하였다. 이러한 물품들을 궁핍한 사람들에게 고루 나누어 주었으며, 그리고 기증받은 물자들을 이용하여 실직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 체육관을 건설하게 하였다.

해롤드 비 리는 물론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또 생산적이고 원대한 해결책을 고안하였지만, 개개인에 대해서도 관심을 결코 잊지 않았다. 스테이크 부장으로 부름을 받은 첫째 크리스마스에 그는 굉장히 슬펐다. 딸아이가 새로 산 인형을 보여 주러 길 건너 친구에게 갔었는데 그만 그 친구의 아버지가 직업이 없어 친구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지 못한 것을 보고 울면서 돌아왔기 때문이었다. “저에게는 정말 피로운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저는 그날 앉아서 식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스테이크 부장으로서 저는 스테이크 내의 회원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라고 그는 회상하였다.

“다음해 크리스마스 때에는 준비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조사를 통해 그 어려운 시기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천 명이 넘는다는 것을 알았습

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를 하여 중고 장난감들을 모아 오래된 창고로 옮겼습니다. 그런 다음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모여 장난감을 모아 인형에 옷을 입히고 필요한 부분에 바느질을 하는 등 장난감 수리를 도와 주었습니다.

“우리는 오렌지와 사과를 구웠으며, 크리스마스 저녁 식사로 온갖 반찬이 곁들여진 구운 쇠고기도 있었습니다. 감독님들이 그 고기를 나누어 궁핍한 가족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었으며, 저에게 모든 사람들을 방문하였다는 사실을 알려 주었습니다.

“그해의 크리스마스에는 제가 알고 있는 한 스테이크 내의 모든 가족들이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지내고 있다고 생각되었기에 편안히 앉아서 저녁 식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개인에 대한 관심이 그대로 그의 가족에게도 이어졌다. 그의 딸들은 아버지를 항상 음악 수업이 있는 곳까지 데려다 주고 또 파티나 교회 모임이 끝나면 집까지 데려오는 사랑이 많고 자상한 아버지로 기억하고 있다. 그는 또한 부드럽고 사랑 많은 남편이었으며, 훗날 교회 회원들에게 가르친 다음과 같은 원리에 따라 살았다. “여러분이 행할 주님의 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한 예로 리 장로가 할아버지가 되어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이 되었을 때, 그의 이러한 태도를 잘 엿볼 수가 있다. 상호부조회의 모임에 참석할 계획을 가지고 있던 그의 딸 헬



경제 대공황이 휩쓸고 있을 때, 리 스테이크 부장의 스테이크에는 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실직 상태에 있었다. 영감을 받아 그는 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창고를 기증받아 잉여 물자를 그곳에 모았다.

렌은 어머니에게 자신의 두 아들을 모임 동안 돌봐 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러나 마침 어머니가 몸이 아팠기 때문에 헬렌은 그냥 집에 있기로 하였다. 아침이 조금 지났을 때 아버지가 사무실에서 전화를 걸어 왔다. “애야, 모임에 참석할 계획이지. 내가 아이들을 돌봐 주마.” 헬렌은 아버지께서 중요한 일을 제쳐 두고 아기를 돌보게 할 수는 없다고 우겼다. 아버지는 “애야, 어째서 그렇게 생각하느냐? 주님의 사업에서 교회 본부 건물에서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것이 더 중요한지 아

니면 엄마가 상호부조회 모임에 참석하는 동안 할아버지가 손자들을 돌보는 것이 중요한 일인지 어떻게 단정할 수 있겠니?” 결국 헬렌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모임에 참석하였다.

1935년 4월 20일 스테이크 부장으로 5년 동안 봉사한 리 형제는 대관장단 사무실로 오라는 연락을 받고 가서 교회의 새로운 복지 계획에 대한 책임을 맡아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는 자신이 그런 커다란 부름을 수행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것이 많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래서

전에도 항상 그랬던 것처럼 주님께 기도를 하였다.

“저는 무릎을 꿇고 ‘대관장단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직을 만들어야 하겠습니까?’라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러자 다음과 같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백성의 필요 사항을 돌보기 위해서 새로운 조직이 필요하지 않으리라.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신권을 행사하는 것이니라.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치 않느니라.”

그는 시 행정관에서 물러나 하나님의 왕국에서 모든 시간을 헌신하기 시작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실 것이며 또한 교회 앞에 놓인 여러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 신권 조직 내에 있다는 확신에 결코 흔들림이 없었다.

젊은 사도

1941년 4월 6일, 42세에 해롤드 버리는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으로 부름을 받았다. 당시 제일 젊은 정원회 회원보다 무려 이십 년이나 젊은 나이였다. 연차 대회가 있던 아침 모임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지난 밤 아홉 시 이후로 저는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고 또 미래를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룻밤 내내 이 두렵고 흥분된 임무에 대해 생각하는 동안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사도 바울의 말씀이 가슴에 와 닿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니라’...

저는 앞으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따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제가 필요한 때에 저를 도와줄 자비와 은혜를 구할 것입니다.”

그 후 삼십 년 동안 그는 여러 가지 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차 대전에 참전한 군인들에게 영감을 주고, 교회의 젊은이들에게 말씀을 하며, 또 여러 신권 위원회에서 봉사를 하고 스테이크를 나누며, 스테이크 부장과 감독 및 선교사를 부르고 성별 관리하고, 초등학교 고문으로 봉사하며, 라틴 아메리카와 남태평양, 남아프리카와 유럽, 그리고 성지를 여행하였다.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이 그를 십이사도 정원회에 불렀을 때, 육십만 명에 달하는 교회 회원의 대부분이 미국의 서부에 거주하고 있었다. 교회가 히버 제이 그랜트와 조지 앨버트 스미스, 그리고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을 거치면서 교회 회원수가 삼백만 명에 이르는 동안, 리 장로는 미국 남부 지역과 영국에서 최초의 스테이크를 조직하는 일과 그리고 아이다호 폴스 성전과 스위스 성전, 그리고 런던 성전의 헌납에 참여하였다. 수년 동안 이러한 봉사를 하면서 그는 인내를 배우고 또 건강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는 한편, 전세계의 성도들에게 사랑과 위로를 전하면서 자신을 연단시켰다.

주님을 믿는 커다란 신앙

그는 1960년대 초에 일생을 통해

가장 어려웠던 두 가지 경험을 했다. 1962년에 아내인 편이 몹시 앓다가 세상을 떠났으며, 4년 후에는 그가 하와이에서 대회에 참석하고 있는 동안 장녀인 모린이 네 자녀를 남겨 두고 갑자기 사망하였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 그는 깊은 슬픔에 빠졌다. 주님을 믿는 커다란 신앙을 통해서 그는 일을 수행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었다.

훗날 베트남 전쟁에서 생명을 잃은 말일성도들을 기리는 기념식에서 그는 다음과 같은 말로 조객들을 위로하였다. “저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을 죽음으로 잃은 적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말씀드리건대 지금은 슬프더라도 그런 상태가 앞으로 오랫동안 계속되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비극이나 슬픔이 우리에게 닥쳤다는 사실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들을 견디어 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을 던고 일어선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앞으로 직면할지도 모르는 다른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이 있다면 이 시대의 엄청난 시련을 극복하고 여러분은 일어설 것이며, 바로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는 내일의 영광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는 교육자이며 행정가인 프레다 조안 젠슨 자매와 재혼을 하였다. 그녀는 그 후로 십 년 동안 남편과 함께 많은 여행을 하고 어려움을 같이 겪었는데, 그동안 그는 사람들, 특히 어린이들을 만나 이들을 자신의 주위로 끌어들이는 아내의 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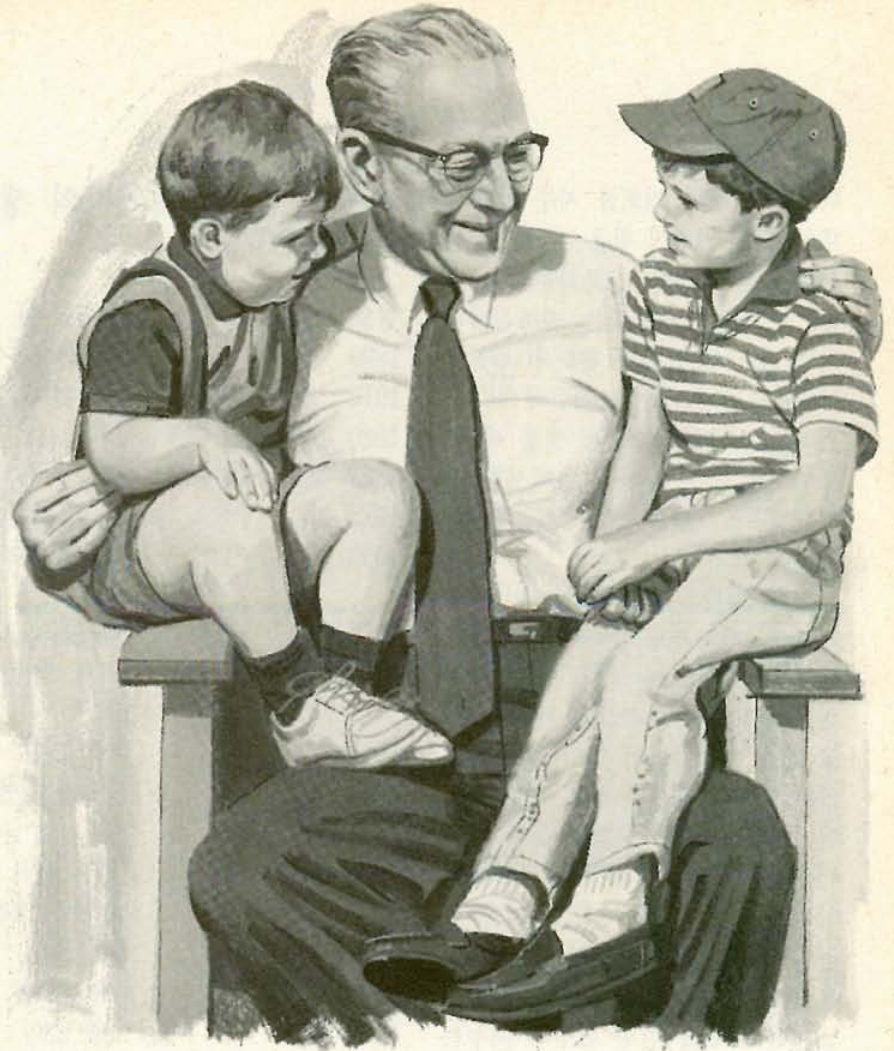
에 감탄을 하였다.

맥케이 대관장이 재임하는 동안 교회 협의 위원회가 조직되어, 리 장로가 위원장으로 부름을 받아 교회의 보조 조직과 이들이 사용하는 교재와 방법을 연구하여, 이를 간소화하고 또 신권이 교회 조직의 중심이 되도록 하는 책임을 맡았다.

1970년 1월에 맥케이 대관장이 운명하자 조셉 필딩 스미스 장로가 제10대 대관장이 되었으며, 해롤드 비리와 엔 엘돈 테너가 그의 보좌로 부름을 받았다. 리 부대관장은 또한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도 겸직하였다. 대관장단의 일원이 되어서도 그는 계속해서 교회 프로그램을 협의하고 이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드는 일에 전력을 다하였다. 교회 공보 부서가 조직되었으며, 그간의 몇몇 교회 잡지를 대체하여 새로운 교회 잡지를 발행하였다. 그는 또한 영국에서 개최된 교회 사상 첫번째 지역 대회에도 참석하였다. 총관리 직원들을 솔트레이크에서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열리는 연차 대회와 비슷하게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개최되는 대회에 보내는 이러한 새로운 조치는 성도들을 강화하고 총관리 직원들을 친히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주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그동안 유타주의 옥든과 프로보에 새로운 성전이 헌납되었다.

분주한 대관장

1972년 7월 2일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이 운명하자 해롤드 비리는 교회 대관장이 되었다. 바로 이



리 대관장은 자신이 가르친 원리에 따라 살았다. “여러분이 행할 주님의 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날을 위해 이제까지 그를 강하게 연단시켜 온 과정이 절정에 이른 순간이었다. 그는 종종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또한 자신은 주님의 종에 불과할 뿐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자신이 제창한 혁신적인 조치들과 변화를 자신의 공이라 생각하지 않고 하늘에서 온 계시에 그 공을 돌렸다.

해롤드 비리는 18개월밖에 교회 대관장으로 봉사하지 않았지만 그동안 그가 보여 준 폭넓은 활동은 그 이전에 비해 더욱더 열성적이었다.

리 대관장은 매사를 성취하기 위해 항상 바쁘고 빠르게 움직였다. 멕시코시티와 독일의 뮌헨에서 지역 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성지를 방문하여 베드로 이후로 그곳을 방문한 첫 번째 교회 대관장이 되었다. 그리고 소규모 성전 건립안이 도입되어 브라질에 성전을 건립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가 시작되었다.

리 대관장은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나가서 성도들과 자주 어울리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그는 교회의 젊은이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 젊은

이들과 접촉할 기회를 자주 가졌다. 또한 그는 가정의 밤을 강조하여 젊은이들의 가정을 강화하려 하였으며, 청소년 프로그램을 재조직하여 신권 조직의 관리를 받도록 하였으며 또한 청소년 지도자들에게 “주님이 오실 때에 그분을 맞을 수 있도록 이 젊은 세대를 준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책임을 맡겼다.

교회 안팎의 많은 사람들이 행정가로서, 지도자로서의 리 대관장의 뛰어난 자질을 잘 알고 있어 그를 칭송하였으나, 한편으로 영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만이 그가 지니고 있었던 비범한 영성을 느낄 수가 있었다. 평생에 걸친 경험을 통해 그는 어디에나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항상 염두에 두었다. 그의 기도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의 기도가 마치 절친하고 믿을 만한 친구와 나누는 친밀한 대화 같았다고 증거하였다.

해롤드 비 리 대관장은 1973년 12월 26일 74세를 일기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 그가 좀더 교회 대관장으로 봉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많은 회원들은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일찌기 그는 성공을 위한 다음과 같은 좌우명을 지니고 있었다. “주위 환경을 연구하여 그 해결책을 찾아내며, 이를 성취하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한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끊임없이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인도와 가르침을 구한다.”

평생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님을 믿고 봉사함으로써 해롤드 비 리 대관장은 자신이 원했던 것처럼 주님의 화살통에 담긴 갈아 놓은 화살이 되었던 것이다. □

해롤드 비 리 대관장의 생애 1899~1973

연도	나이	일어난 일
1899	—	3월 28일 : 아이다호주 클립톤에서 출생.
1916	17	아이다호주 실버 스타에서 교사로 일함.
1920~22	21~23	미국 서부 선교부에서 선교사로 봉사함.
1923~28	24~29	솔트레이크시티에서 교장으로 일함.
1923	24	11월 14일 : 편 루신다 태너와 결혼.
1930	31	솔트레이크시티 파이오니어 스테이크 부장으로 부름받음.
1932	33	솔트레이크시티 행정관으로 임명됨.
1937	38	교회 안전 프로그램(복지 프로그램)의 관리자가 됨.
1941	42	4월 10일 : 십이사도 정원회에 부름받음.
1954	55	동양을 순방함.
1959	60	중앙 및 남아메리카의 선교부를 방문함.
1961	62	본부 신권 위원회 위원장으로 협의 프로그램의 발전에 일조를 함.
1962	63	9월 24일 : 아내 편이 사망함.
1963	64	6월 17일 : 프레다 조안 젠슨과 결혼.
1970	71	1월 23일 :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과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의 보좌를 겸직함.
1972	73	영국에서 있었던 교회 최초의 지역 대회에서 말씀을 함. 옥든과 프로보 성전의 헌납식에 참여함. 7월 7일 : 교회 대관장으로 성임됨. 10월 6일 : 교회 대관장으로 지지됨. 멕시코 지역 대회를 감리함. 상호 향상회 프로그램이 신권 지도자의 지시를 받도록 함.
1973	74	독일 지역 대회를 감리함. 12월 26일 : 솔트레이크시티에서 별세.

참고 문헌

1. 레오나드 제이 아링튼, “해롤드 비 리”, *교회 대관장*, 레오나드 제이 아링튼 편집, 솔트레이크시티, 유타 : 데저렛 출판사, 1986.
2. 엘 브렌트 고우츠, *해롤드 비 리 : 예언자, 선견자*, 솔트레이크시티, 유타 : 북 크래프트사, 1985.
3. “해롤드 비 리”, *영원히 설 주님의 왕국 : 역사 요약*, 솔트레이크시티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1980, 129~136쪽.
4. 고든 비 힝클리, “해롤드 비 리 대관장”, *앤사인*, 1972년 11월호.

신권의 축복에 온전히 참여함

우리들 개개인은 영의 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 계시도 받을 수 있습니다.(교리와 성약 88:63 참조) 그러나 구원에 관한 의식과 기타 신권 축복은 신권을 소유한 사람들이 집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권의 권세를 통하여, 살아 계신 예언자와 총관리 역원 및 지역의 신권 지도자들로부터 인도를 받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할 수 있는 신권 의식과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호부조회의 목표 가운데 하나는 여성들에게 “신권의 충만한 축복에 참여하는 방법”(상호부교회 지침서, 1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볼 때 여성들은 침례를 베풀거나 성임하거나 신권 축복을 주기 위해 원을 지어 선 대열에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십이사도 평의회는 존 에이 윌소 장로께서 기록하신 바와 같이 “남성들은 신권에서 나오는 축복과 신권을 소유함으로써 받게 되는 축복에 대해 여성들보다 더 많은 몫을 갖게 되리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구원에 관한 축복을 구함

구원에 필요한 신권 축복에는 침례, 확인, 성전 엔다우먼트, 해의 왕국의 결혼, 인봉 및 죽은 자를 위한 침례 의식 등이 포함됩니다. 만일 이러한 축복들 가운데 어느 것이라도 온전히 누리기를 원한다면 그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한다



수 헨스 그림

는 것은 곧 희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체코슬로바키아의 올가 코바로바 자매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저는 개심한 후 침례를 받기까지 6개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침례당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숲 속으로 가서 침례받을 수 있기 위해 여름까지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드디어 침례일이 되어 그들이 숲 속 저수지로 갔을 때,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한 형제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로 도움을 구하지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신권의 기도로 인한 기적을 보았습니다. 저희가 조용하게 기도를 드리고 난 지 몇 분 지나지 않아, 대부분의 낚시꾼들이 강가를 떠난 것입니다. 물에서 나올 때의 저의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상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올가는 체코슬로

바키아에서 거의 40년 만에 침례를 받은 최초의 청녀입니다. 그녀는 확인을 받는 가운데 자신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올 것이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 구원에 관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다른 신권 축복을 구함

외로움과 번민에 빠져 있을 때 신권의 축복과 권고는 평안과 위안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병들어 있을 때 축복을 통해 정신적, 육체적인 짐을 덜 수 있으며, 가장의 축복을 통하여 지시와 목표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매주 성찬식에 참석하여 구세주와 맺은 성약을 새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본부 상호부교회 회장단의 지에코엔 오까자끼 자매는 이렇게 회고합니다.

“남편이 제 곁을 떠났을 때, 저의 슬픔과 고통이 한없이 컸기 때문에 저는 몹시 위안을 갈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경전을 펼쳐 들고 제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이 있는 다음 주일에 교회에 참석했을 때, 저는 성찬 기도를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하게 듣게 되었으며 구세주의 영이 제 곁에 함께 하도록 할 수 있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분과 맺은 저의 성약을 새롭게 함으로써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것처럼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매주 일마다 이 신권 의식에 참여하여 이러한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 이처럼 여러분은 어떤 신권 축복을 통해 위안을 받는가? □

사랑 의 고리

호세 로베르토
알라르콘 나바레테

이 이야기는 실화이며 아름답기 그지없지만—그리 특별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런 일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들이 있는 곳이면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이야기는 1985년부터 1991년 사이에 칠레 중부 남쪽에 위치한 도시인 테루코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간증을 나누기로 결심했던 세 명의 청년에 관한 이야기로서 그러한 결심을 한 뒤에 일어났던 호뭇한 개종담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이 개종시킨 사람들은 예상했던 것보다 몇 배나 많았습니다.

원래 라하스라는 도시 출신으로 테루코 카톨릭 대학에 다니던 에랄도 토레스는 그의 대부분의 교우들

에랄도 토레스





루이스와 마르타 코르네오와 아들

과는 달리 말일성도였습니다. 그의 급우들은 그가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신학 시간에서조차 도덕 문제에 관한 자신의 소신을 뚜렷하게 밝힐 줄 아는 용기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신학 시간에 발표한 자신의 의견 때문에 때때로 저조한 성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많은 교수와 교우들은 그를 존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에랄도와 한 방을 쓰던 오랜 친구로서 로베르토 히메네스도 역시 교회 회원이었으며 선교 사업을 마치고 복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 있었습니다. 많은 개종자들처럼 그도 가족 가운데 유일한 말일성도였습니다. 그는 무사히 대학에 복학함으로써 공부를 중단하고 선교 사업을 나가지 못하도록 설득하려고 했던 많은 친구들과 친척들이 염려하지 않게 하였습니다.

“언제 선교 사업 나갈거야?” 하



로베르토 히메네스

고 로베르토는 이따금 에랄도에게 쫓겨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에랄도는 “곧. 졸업하면 갈거야.” 하고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럼 10년 후에 간다는 말이야?” 또 로베르토는 그렇게 농담으로 되받곤 했습니다.

함께 영어를 전공하던 이 두 친구는 얼마 전에 역시 영어를 전공하는 또 한 명의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는 루이스(“루치토”) 코르네오라는 이름의 청년으로 수도인 산티아고 출신이었습니다. 남들이 생각하기에 수줍음이 많던 루치토는 로베르토와 에랄도가 워드 모임과 신학 연구원 대학부에 초대하자 그 초대를 받아들였으며 복음에 깊은 호감을 가졌습니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루치토는 말일성도인 에르난데스 가족의 집에서 하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가족의 친절하고 온유한 태도에 영향을 받아 자신도 많이 온화해



루이스 코르네요의 어머니인 카르멘 바르가스 로드리구에즈와
누이인 알레한드로와 아기



길레르모 로살레스

졌으며, 결국 침례받기로 결심하
기에 이르렀습니다.

루치토는 일련의 개종 과정에 참
여한 최초의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
다. 바로 사랑의 고리라는 이 특별
한 이야기의 첫번째 등장 인물인 것
입니다. 그는 한번은 산티아고의 고
향 집에 갔을 때 그의 어머니와 누
이를 설득하여 교회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게 했습니다. 이 두 사람도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또 루이스
소토라는 급우에게도 똑같은 초대
를 하였으며, 이 루이스 소토도 그의
뒤를 따라 침례의 물 속으로 들어갔
습니다.

교회에 가입했을 당시 루이스 소
토는 스위스 이주민의 후손으로 자
동차 기계학을 전공하는 리차드 스
피치거라는 학생과 같은 하숙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리차드는 그의 이

웃인 루이스 소토의 예의와 품행에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호의적인 생
각으로 인해 역시 같은 하숙집에서
생활하고 있던 복음 선교사들과 토
론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리
차드는 침례 받은 후에 칠레 오소르
노 선교부로 부름을 받았으며, 그곳
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
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루치토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루치토는 루이
스 소토와 리차드 스피치거가 교회
에 가입하기 전에 릴리아나 살라자
르라는 여학생에게 자신의 새로운
간증을 들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에
랄도나 로베르토나 루치토나 루이스
와 마찬가지로 릴리아나도 영어를
전공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녀는
학급에서 최우수 학생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
한 것은 루치토의 생활에서 일어나
는 변화를 보고 릴리아나도 루치토



루이스 소토와 가족



네스토르 브라보, 미르나 살라자르, 릴리아나 브라보(아기 안은 이)와 파트리시아 살라자르

의 믿음에 관해 공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몇 개월 후에 그녀 또한 말일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런 후 릴리아나의 청에 따라 그녀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자매인 파트리시아도 회복된 복음에 관한 메시지를 듣고 받아들였습니다. 또 릴리아나는 개종 이야기에 나오는 여섯번째 학생인 친구 기에르모 로살레스에게 교회를 소개하였으며, 그도 교회에 가입하였습니다.

릴리아나는 교회 활동을 통해 최근에 개종한 네스토르 브라보를 만났으며, 후에 그와 성전에서 결혼하였습니다.

네스토르는 교회에 가입하기 오래 전부터 자신이 특히 좋아하는 연극 예술 분야에서 성공하고 싶다는 강한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발디비아라는 남부 도시에서 대학생들을 위해 연극 공동 연구회를 조직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리처드 스피치거

개종은 그가 충실한 교회 회원으로 수의학과 학생이던 알레한드로 아랑과를 만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둘 사이에 아름다운 우정이 커져 갔습니다. 네스토르는 그 새로운 친구가 여느 젊은이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곧 깨달았습니다. 영의 인도를 받아 알레한드로는 그에게 자신의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네스토르가 침례받은 후 두 사람은 칠레의 신학 연구원 중등부와 대학부에서 무연극 공연을 하며 함께 여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연극에 복음의 원리를 접목시킬 수 있는 아름답고 예술적인 방법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두 사람은 연극을 보러 온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강한 간증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알레한드로가 직장 때문에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혼자 남은 네스토르는 스테이크 서기로, 뒤에는 세미나리 새벽반 교사로 부



루이스 캄포스



마리아 레이난코

를 받았습니 다. 그는 니과이와 몰몬과 엘마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극화하여 그의 학생들의 마음에 매우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기도 했습니다. 전문적인 면에서 네스토르는 연극계의 떠오르는 예능인으로 유명해졌으며, 그가 이끄는 무연극단인 안투미믹은 칠레와 아르헨티나의 여러 도시를 순회하며 공연을 했습니다. 그는 교육자로서도 존경과 찬사

를 받았으며 테무코에 있는 프론테라 대학에서 교편을 잡게 되었습니다.

네스토르가 가르치던 그 대학의 한 학생인 카롤리나 우루티아는 네스토르에게서 대단히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네스토르가 다른 유능한 사람들과는 무언가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느낌이 너무도 강했기 때문에 그녀는 그 이

유를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네스토르는 매우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으며, 그 결과 그녀에게 침례를 베풀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녀와 네스토르는 또 한 학생의 개종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리아 레이난코로 배우이자 학교 교사였습니다.

카롤리나는 복음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키우게 되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느 일요일에 그녀가 교회에 가기 위해 택시를 탔을 때 그 택시의 기사는 그녀가 들고 있는 표준 경전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서로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으며, 택시가 교회에 도착하자 카롤리나는 그에게 함께 예배 모임에 참석하고 선교사도 만나 보도록 권했습니다. 교



알레한드로와 로레나
아랑구아 및 자녀들

회에 대해서 배운 그 택시 기사, 루이스 캄포스는 순결의 법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 계신 예언자가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두 달 후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한편 치안 시에 살고 있는 카롤리나의 어머니는 잠시 들른 딸의 간증을 들은 뒤에 교회에 가입하였습니다.

에랄도 토레스와 로베르토 히메네스와 네스토르 브라보, 그리고 이 아름다운 고리 안에 든 다른 사람들 때문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해가 갈수록 그 숫자를 헤아리기가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많은 가족들이 침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 개종한 사람들 가운데 많은 수가 복음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으며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그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끝이 없는 원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회원으로 이어지는 사랑의 고리는 전세계 어느 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칠레의 수많은 개종자들의 마음에서도 계속 커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졸업한 후에 선교 사업을 할 것이라고 친구에게 약속했던 그 대학생 에랄도 토레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에랄도는 학위를 받은 뒤에 칠레 산티아고 남부의 선교부로 선교 사업을 나갔습니다. 그가 집으로 보내 온 편지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빛을 계속해서 나누어 주면서 느끼는 기쁨에 대한 큰 간증이 가득합니다.



카롤리나 우루티아의 어머니인
카르멘 레티시아 카스틸로



카롤리나 우루티아

다.

칠레에서 교회가 이처럼 경이적인 성장을 하는 것은 말일성도들이 언론을 통해 반물몬 성향을 가진 사람들로 부터 심한 핍박과 괴롭힘을 당할 때에도 계속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어느 것도 성도들의 신앙을 약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계속 커져 가는 고리처럼, 개종한 지 오래된 회원들이나 최근에 개종한 회원들 모두 사랑과 간증과 복음의 축복에 대한 감사로 뚝뚝 뭉쳐 있습니다.

우리 칠레 사람들이 회복된 복음을 받아들이자 주님은 이 땅에 평화와 번영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백성들을 매우 사랑하셨던 스펜서 더블류 김볼 대관장님이 레이맨인들이 장미꽃처럼 번성하리라고 약속하신 예언이 더욱 성취되어 가는 것을 매일 보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에 대해 니파이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며, 그로 인하여 저들은 조상에 관하여 알게 되고, 저들의 조상이 가졌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다시 회복되리니,"(니파이서 30:5)

우리를 하나로 묶고 있는, 다시 말해 우리를 주님의 교회의 회원으로 묶고 있는 사랑의 고리는 인간에게 불사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업의 시작에 불과할 뿐입니다. □

호세 로베르토 알라르콘 나바레테는 칠레 테무코 스테이크 부장단에서 봉사하고 있다.

칭

모세가 주께 말하여 가로되, 오, 하나님ishi여, 당신의 종에게 자비를 베푸사 이 세상과 그 주민과 그 하늘에 관하여 내게 말씀하소서...

“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은 그 수가 많으니 사람이

헤아릴 수 없도다. 그러나 나는 헤아릴 수 있나니, 이는 내 것이 됨이니라...

“보라 인간에게 불사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일, 이것이 바로 나의 사업이요 영광이니라.

“이제 내 아들 모세야, ...나는 이 하늘과 이 땅에 관하여 네게 계시하노

니, 내가 이르는 말을 기록하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나의 독생자를 시켜 내가 이것들을 창조하였나니, 참으로 태초에 내가 하늘과 네가 서 있는 땅을 만들었느니라.

제 1 일

“땅은 형체가 없이 공허하더니 내가
흑암을 깊은 위에 있게 하였고 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 됨이니라.

“나 하나님이 이르기를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고,

“나 하나님이 빛을 보니 그 빛이

좋았더라. 이에 나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었더라.

“나 하나님이 빛을 낮,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였고, 나의 권세 있는
말로 이를 행하였더니, 내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졌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조

사진 촬영: 플로이드와 윌리 홀드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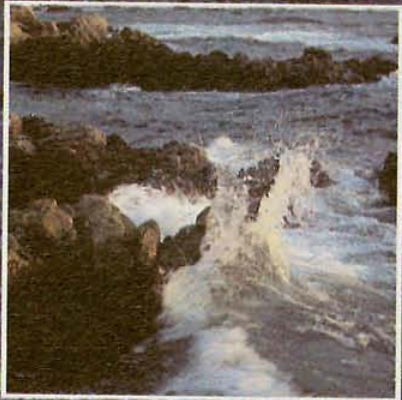


제 2 일

“또 나 하나님이 이르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으라 하니, 내가 말한 대로 되더라. 내가 이르기를 물과 물이 나뉘이라 하니 그대로 되니라.

“나 하나님이 궁창을 만들고 물을 나누니 곧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니 내가 말한 대로 되더라.

“나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니라.



제 3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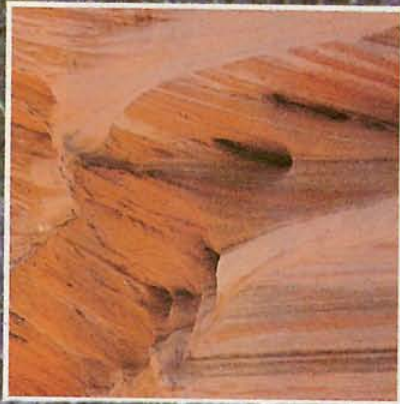
“또 나 하나님이 이르되, 하늘 아래 있는 물은 한 곳에 모이라 하니 그대로 되니라. 나 하나님이 이르되, 마른 땅이 있으라 하니 그대로 되니라.

“나 하나님이 마른 땅을 육지라 하고 물을 바다라 칭하니라. 나 하나님이 보니 내가 만든 것이 모두 좋았더라.

“나 하나님이 이르되,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과목이 땅 위에 있으라 하매 말한 그대로 되니라.

“땅은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모든 채소와 ... 열매를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내니, 하나님이 보매 내가 만든 것이 모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니라.





제 4 일

“나 하나님이 이르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또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치라 하니, 그대로 되니라.

“나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들어 더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니, ...또 별들이 나의 말대로 지음을 받았고,

“나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나 하나님이 보니 내가 만든 것이 모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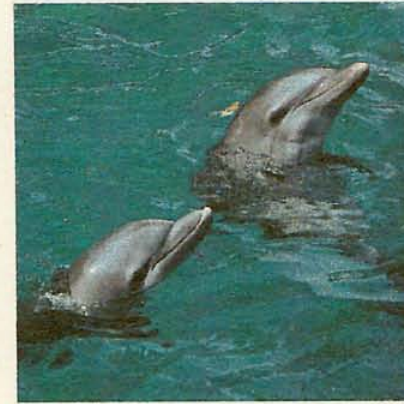
제 5 일

“나 하나님이 이르되, 물은 생명을 지닌 움직이는 생물과 지구 위로... 날으는 새들로 번성케 하라.

“나 하나님은 큰 고래와 물이 번성케 하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모든 날개를 가진 새를 그 종류대로 만드니라. 나 하나님이 보니 모든 것이 좋았더라.

“나 하나님이 저들에게 복을 주어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였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다섯째 날이니라.





제 6일

“나 하나님이 이르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니 그대로 되니라.

“나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니라. 나 하나님이 보니 이 모든 것이 좋았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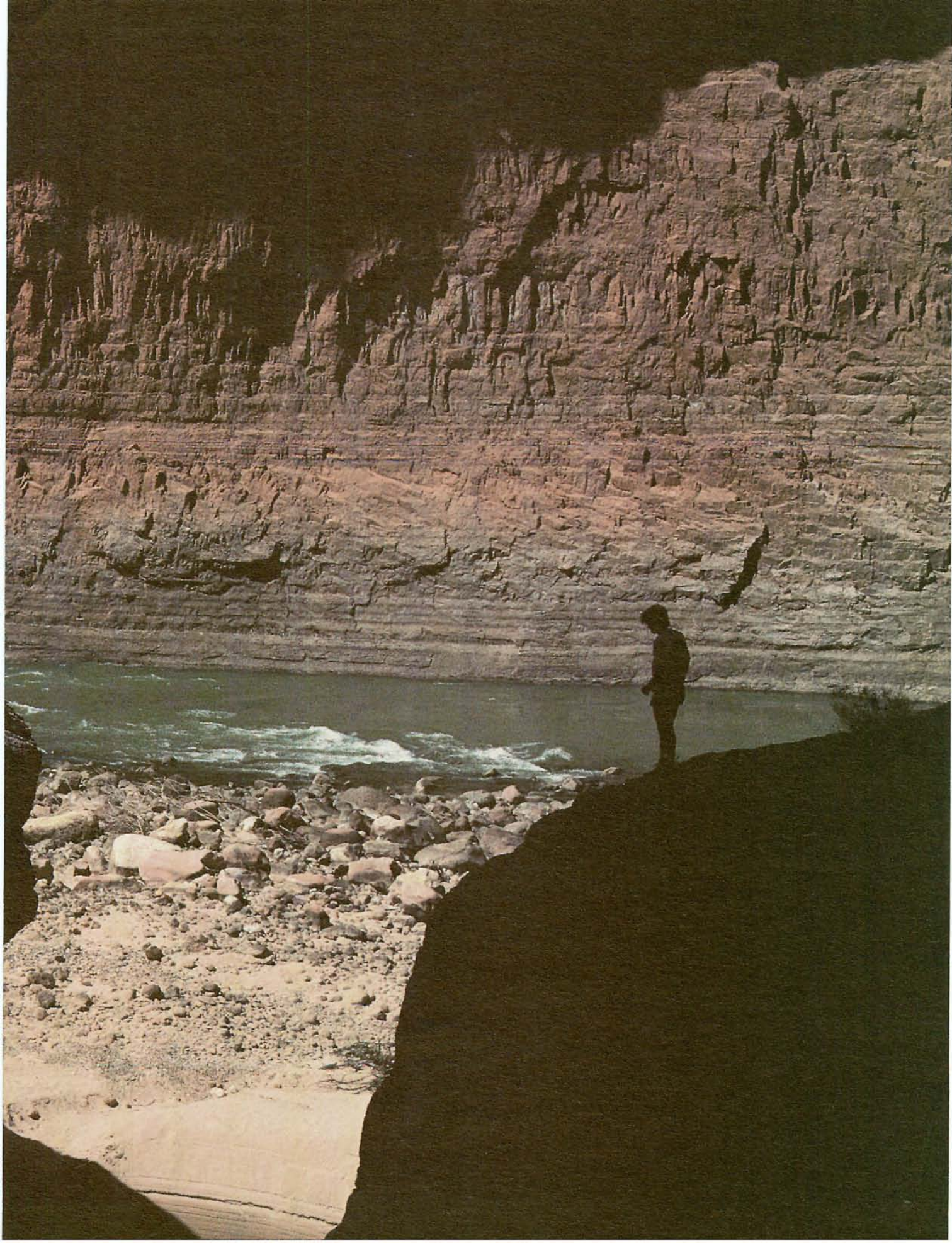
“나 하나님이 태초부터 함께 있던 나의 독생자에게 이르되,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고 그대로 하니 그대로 되니라. 나 하나님이 이르기를, 저들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모든 땅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고,

“나 하나님이 나의 형상 곧 내가 지은 나의 독생자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되 저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니라.

“나 하나님이 저들에게 복을 주어 이르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였더라...

“나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을 보니 내가 만든 모든 것이 보기에 매우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니라.







제 7일

“이같이 천지와 그 모든 만군이 이루어졌느니라.

“일곱째 날에 나 하나님이 나의 일과 내가 하던 모든 일을 마치니라. 곧 나는 나의 모든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나니, 내가 만든 모든 것을 끝내고 바라보니, 그것들이 좋았더라.

“나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축복하고 거룩하게 하였나니, 이는 나 하나님이 창조하며 만드는 모든 나의 일을 마치고 그날에 쉬었음이니라.”

(모세서 1:36~3:3) □



구약전서를 좋아하게 되는 법을 배움

메리 헤이즌 존슨

저는 어린 시절에 노아나 다윗이나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후에 저는 어린이를 위한 성경 이야기 책을 읽었으며, 열 살 때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그 시도를 몇 차례 해보았습니다만 결과는 언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세기를 읽어 나갈 때마다 구약전서의 복잡함에 기가 죽어 이내 흥미를 잃고 만 것입니다.

그러다가 열 아홉 살이 되어서 저는 개심하여 회복된 복음을 받아들여지게 되었으며 경전을 다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회복에 대한 통찰력까지 갖게 되었기 때문에, 경전은 크고 한없는 즐거움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구약전서는 여전히 쉽지 않은 책입니다. 그 분량은 가히 그 책을 읽으려고 하는 사람의 굳건한 결의를 약화시키기에 충분합니다. 그 책에는 자주 반복되어 나오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현대의 생활과는 무관한 듯 싶은 가르침에 대해 지나치리 만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벽을 어떻게 넘을 수 있을까요?

저는 오랜 세월을 걸쳐 구약전서를 이해하고 좋아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될 몇 가지 방법을 발견하였습니다.

첫째, 처음 읽는 사람은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 사자 굴 속의 다니엘이라든지 다윗과 골리앗 같은 친숙한 이야기부터 읽기 시작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에스더와 같이, 처음에는 분량이 적은 것부터 읽으십시오.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은 더 많이 읽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건너뛰며 읽으십시오. 성막의 넓이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면 다른 장이나 다른 서로 넘어 가십시오. 구약전서에 더욱 친숙해지면 언젠가는 빠뜨렸던 부분에 다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매일 조금씩 읽으십시오.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 1장이 적절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율법이나 의식에 관한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을 읽을 때는 더욱 그랬

습니다. 저는 이 방법을 통해 천천히 그리고 주의깊게 읽어 나갔으며 흥미있는 성구들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나가면서 제가 발견했던 주옥 같은 성구라면 신명기 29장 29절을 들 수 있습니다.(이 글을 계속 읽어 나가도 좋고 그 구절을 한 번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만일 신명기를 한 번에 1장씩 천천히 읽어 나가지 않았다라면, 저는 이 성구를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넷째, 구약전서 전체를 통해 어떤 특별한 주제에 대해 연구해 보십시오. 저는 이 방법이 주는 다양성과 자유로움 때문에 이 방법을 애용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주제 가운데 하나는 마음으로서, 여기에는 상한 마음,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 대 굳은 마음, 할례받은 마음이 포함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주제에 관해 연구해 나가는 과정에서, 구약전서에서 가르치는 복음의 깊이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다섯째, 색인, 성서 사전, 전후 참조 성구, 지도와 같은 학습 보조 자료를 사용하십시오. 자료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여러분이 현재 이해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음미하십시오. 저는 때때로 구약전서를 읽어 나가면서 그 장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의미에 대해 알 때까지는 자세한 내용을 몰라도 걱정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이사야서를 완전히 이해한다고 큰소리 칠 수는 없어도 그 글을 읽는 것은 좋아합니다. 저는 이스라엘의 말일의 영광이나 주님이 그분의 백성들에 대해 가지신 큰 사랑이나 약속된 메시야에 대한 글을 즐겨 음미합니다. 이러한 글을 읽을 때면 마음 가득히 따스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느끼게 됩니다. 이사야가 언급하고 있는 사건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혹은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대상 시기가 과거인지 현재인지 아니면 미래인지 늘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그가 설명한 시온에서 저도 살고 싶어한다는 것만큼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경전을 더욱 온전히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구약전서를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추수를 하기 위해서는 곡식을 키우기 위해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



아브라함의 성약

만민을 위한 축복

우리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성약으로 인해 복음과 신권을 상속받게
되었다.

켄트 피 잭슨

주님의 종들 가운데 아브라함에 비견할 만큼
뛰어난 지위를 가진 사람은 거의 없다. 기독교
교인들과 유대인들과 회교도들과 말일성도들
은 아브라함을 충실한 자들의 아버지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의 훌륭한 조상이라고 생각한다. 전세
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위대한 축복사의 이름으로
불리우며, 그의 삶과 행위에 대한 유산 및 그의 후손들
이 계속해서 간직해 오고 있는 그에 관한 명예로운 기
역을 입증해 주고 있다.

역사에서 아브라함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크다.
창세기와 아브라함에서는 그가 신앙과 근면으로써 주님
을 섬긴 것에 관해 기록하고 있다.(아브라함서 1~2장,
창세기 11:26~25:10 참조) 이 거룩한 기록에서는 그
가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일을 몸소 행하고자 했으며
심지어 하나님의 명에 따라 그에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
소중했던 아들마저도 기꺼이 희생하려고 했음을 보여

주고 있다.(창세기 22:1~18, 히브리서 11:17~19 참
조) 주님은 지상의 만민 가운데서 바로 이 충실한 사람
을 성약의 백성의 조상으로 택하셨다. 모든 사람들은
그의 직계 자손들과 그의 자손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
을 통하여 복음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우리에게 있어
서 아브라함은 성약의 역사의 중심점이 되며, 충실한
성도들은 그의 후손으로 헤아림을 받는 것을 기뻐하며
의에 관하여 그의 모범을 따르려고 노력한다.

거룩한 약속

성약이란 두 상대방이 서로에게 책임을 이행하기로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각 당사자는 그 성약을 받아들임
으로써 성약과 관련된 어떤 의무를 지게 된다. 복음의
성약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거룩한 합의를 할 때
그분의 뜻에 따르겠다고 약속한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면 영광스러운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축복사 아브라함은 조금도 흔들림 없이 주님에게 헌
신했으며 하나님과 성약을 맺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질
수 있었다. 성경에는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신앙과
순종 때문에 약속하신 축복들이 기록되어 있다. 아래의

은혜의 보물 창고

유언

예들은 네 가지 약속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약속 1: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창세기 13:14~15)

약속 2: “내가 네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대 네 자손도 세리라”(창세기 13:16)

약속 3: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창세기 17:7)

약속 4: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창세기 22:18)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과 손자인 이삭과 야곱도 이와 비슷한 약속을 받았으며 아브라함이 맺었던 것과 똑같은 성약을 맺고 아브라함이 가졌던 의무와 똑같은 의무를 졌다.(창세기 26:1~4; 28:10~14; 35:9~12 참조) 그 성약은 후에 시나이산에서 위에 언급된 세 사람의 자손들인 이스라엘의 족속과 과거와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새롭게 맺어졌다.(출애굽기 19:1~8 참조) 유산으로서, 그 혈통을 잇는 사람들은 그들의 위대한 선조들과 같은 축복을 받고 똑같은 의무를 진다. 현대에 와서 주님은 그 성약을 그분의 성도들과 함께 새로이 맺으셨다.(교리와 성약 84:33~40, 48; 110:12 참조) 따라서 오늘날 말미성도들은 옛날 그 축복사들이 맺은 성약을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에 맺은 성약으로 올바르게 인

식할 수 있다.

위에서 인용한 성구는 다른 경전과 함께 볼 때 아브라함이 맺은 성약의 다음 네 가지 큰 단면을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약속의 땅

주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와 그의 성약의 자녀들에게 가나안 땅을 축복으로 주셨다. 후에 주님은 계시를 통하여 다른 약속의 땅, 예를 들면, 요셉의 자손들에게 유산으로써 미대륙을 정해 주셨다.(니파이삼서 15:12~13; 16:16; 이더서 13:8 참조)

그러나 경전에서는 이 약속이 백성들의 의로운 행위를 조건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 우리는 구약전서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부하자 하나님이 땅을 주시기로 한 약속을 미루셨다는 내용을 읽을 수 있다. 처음에는 북방의 열 지파를 그들의 합당치 못함에 대한 대가로 그 땅에서 끌어내셨으며(열왕기하 17장 참조), 후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마찬가지로 끌어내셨던 것이다.(열왕기하 24~25장 참조) 주님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축복을 주시지 않으셨으며, 이로써 충실할 때에만 땅을 유산으로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이루셨다.(신명기 4:25~27; 28:15, 62~64 참조)

약속의 땅은 거룩한 성약에 따르는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그들이 성약을 지키는 것을 조건으로 가나안을 주셨다.

성약의 백성들은 성약의 조건을 성취할 때에만 그 땅을 받을 수 있다. 이스라엘의 흩어진 지파들이 아브라함의 고대에 맺었던 성약을 다시 받아들이면, 주님은 그들을 평화로운 가운데 약속의 땅으로 모으실 것이다.(니파이서서 6:11; 10:7~8 참조)

2. 수많은 자손

아마 아브라함의 성약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축복은 자손들을 무수히 많이 해주시겠다는 축복일 것이다.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자신의 조상으로 본다는 점에서 이 약속이 어느 정도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많은 아랍인들은 아브라함을 그들의 직계 조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것은 수많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이다. 8백 5십만 명이 넘는 말일성도들도 그를 조상으로 여기는가 하면, 1억이 넘는 다른 기독교인들과 회교도들도 아브라함을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들의 조상으로 여기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감명깊게도 바로 하나님께서 분의 귀한 종에게 하신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주님이 하신 약속은 궁극적으로 볼 때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현대에 주어진 계시에서는 거룩한 성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자손과 후손에 대하여 약속을 받

았나니, ...그 후손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존속되어 가리니,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 관하여는 ...이 세상이나 이 세상 밖에서도 저들은 별과 같이 수없이 많이 계속되어 가리니 곧 너희가 바닷가의 모래를 헤일 수 있어도 저들을 헤일 수 없으리라.”(교리와 성약 132:30) 수없이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

속은 지상의 후손에 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도 해당된다.(브루스 알 맥쿱키, *복천년의 메시아, 인자의 재림*, 솔트레이크시티: 데저렛 출판사, 1982년, 262~264쪽, 267쪽 참조) 승영과 영원한 가족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업의 속성을 이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얼마나 큰 것인지 거의 상상할 수도 없다.

3. 신권과 복음의 축복

아브라함의 성약을 통한 약속 가운데는 충실한 상속자들이 복음과 주님의 신권의 권세를 갖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성약의 후손들은 그들의 유산으로 이러한 축복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성약의 축복과 마찬가지로, 사실 그들은 개인적으로 합당할 때에만 장자 상속권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그 권리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다음과 같은 중요 성구가 있다.”너(이는 “곧 네 신권으로” 하는 일이라)와 후손(곧 신권)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는 내가 네게 한 가지 약속을 줄 것임이니 그 약속은 곧 이 권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이 별처럼 많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능은 너로 말미암아 계속되고 네 후손(문자 그대로의 후손이니 몸에서 나온 자손)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권속이 복을 받으리니”(아브라함서 2:11). 따라서 신권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후손들에게 계속될 것이다. 비록 복음과 신권이 세상에 주어지지 않은 배도의 기간이 있긴 하지만, 그 복음과 신권은 아브라함의 혈통과 함께 회복의 때까지 감추어져 있다. 그 회복의 시기에 새롭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너희 곧 조상의 혈통을 따라 대대로 이어 내려온 신권을 지닌 너희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육체로는 정당한 상속자요, 하나님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서 감추인 자임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생명과 신권은 지금까지 보존되어 왔고 또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거룩한 모든 예언자의 입으로 이야기 된 바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너희와 너희 혈통을 통하여 반드시 보존되어야만 하느니라.”(교리와 성약 86:8~10)

4.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에 관한 복음을 전파함

경전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성약의 권속을 통하여 “세상의 모든 권속이 복을 받으리니 복음의 축복, 구원의 축복 곧 영생의 축복을 얻으리라”(아브라함서 2:11)라고 가르치고 있다. 아브라함의 권속들이 맨 처음 가져 왔던 축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희생이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후손이었던 예수님은 속죄를 통

해 만민을 축복해 주고 계신다. 바로 그분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부활을 통하여 죽음의 사슬로부터 구원받게 되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한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이 일정한 등급의 영광에서 영원한 상속을 받게 될 것이다.

구원에 관한 아브라함의 성약의 두번째 영역은 아브

라함의 성약의 자녀들이 받았던 부름, 즉 하나님의 나머지 자녀들에게 복음과 그 복음으로 인한 축복을 전하라는 부름이다. 주님은 이스라엘의 권속들을 불러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들에 관하여 이렇게 설명하셨다. “네 자손은 만국 백성에게 성역을 베푸는 직분과 신권을 지니리라.”(아브라함서 2:9)

복음의 축복이 지상에 주어졌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 이래 이스라엘의 권속들은 그 복음의 축복을 받아왔다. 따라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후손들은 선택된 백성이다. 그들이 선택받은 것은 그들이 구원에 이르는 더 쉬운 길을 알고 있거나 하나님이 그들을 다른 백성들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이 아니다. 그들은 말일성도 개개인이 교회 부름을

위해 부름받도록 선택된 것과 같은 맥락에서 바로 봉사하도록 선택된 것이다. 이스라엘 권속들의 선택받은 상태를 복음에서의 다른 부름과 마찬가지로 봉사하도록 부름받은 것으로 본다면 우리는 부름에 대해 올바른 견해를 갖게 될 수 있다.

아브라함의 성약은 아브라함의 직계 자손이 아닌 사



아브라함의 성약의 상속자들은 주님의 신권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람들에게도 축복을 준다. 이스라엘의 권속이란 주님의 성도들의 권속을 말한다. 경전에서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아브라함의 성약에 참여한 사람들은 비록 그들이 아브라함의 문자 그대로의 후손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권속이 된다고 가르치고 있다.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육체적인 자손이 아닌 지상의 민족들에 관해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다.

“나는 네 이름을 통하여 저들을 축복하리니,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네 이름으로 불리울 것이요, 네 자손으로 헤아림을 받아 일어서서 너를 저들의 조상으로 축복하리라.”
(아브라함서 2:10)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권속이 되는 것에 대해 똑같은 교리를 가르쳤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른 말로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거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거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갈라디아서 3:27~29).

양자의 원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지만 복음을 받아들여 그의 권속이 된 사람들에게 해당된다. 주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성약의 상속자로 헤아리셔서 그 성약에 따른 축복과 의무를 함께 주신다. 다시 말해 그들은 이스라엘의 권속이 되는 것이다.(우리는 축복사의 축복

을 통해 우리의 혈통을 알고 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실질적인 후손과 양자의 원리를 통한 아브라함의 상속자들 사이에는 차이가 전혀 없다. 이들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다.

주님은 말일에 “이방인의 빛이 되며 이 신권을 통하여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교리와 성약

86:11)가 되도록 그 고대 축복사의 성약의 자녀들을 부르셨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셨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말일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두 가지 선교 사업의 임무는 (1) 이스라엘의 다른 권속들이 하나님과 그들의 조상들이 맺은 성약 안으로 돌아오도록 모으는 것과 (2) 그들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다른 모든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다.

주님은 모든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 현대에 복음을 회복하셨다. 충실한 모든 사람들은 침례를 받고 성전 의식을 받으며 의롭게 생활함으로써 복음의 축복을 온전하게 받을 수 있다. 주님의 성도들에게 성약의 축복이 주어질 때에 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에게 부여된 그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훌륭한 기회와 그

러한 축복을 받기 위해 수행해야 할 커다란 책임을 안고 있다. □

켄트 피 잭슨은 유타주 프로보에 있는 브리감 영 대학교에서 고대 경전학을 가르치는 부교수이며 극동 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다.



아브라함의 성약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다른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부름받는다.

기적

을 원함

천사나 다른 표적들 -저는 그것만이 제가 굳건한 간증을
갖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만다 매리오티

저는 언제나 어떤 것들을 입증하기 위해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매우 감명깊은 사건이 일어나 증명해 보이기 전에는 어떤 일이든 잘 믿지 못했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태어나 교회 안에서 자랐으며, 상호향상회와 청녀 아영 대회에도 갔었고, 청녀 모토도 암기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꿀벌반 역원으로도 봉사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는 교회가 참되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불붙는 듯한 느낌이라든지 따스한 느낌, 평화로운 느낌, 아름다운 느낌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저에게는 아무런 느낌도 없었습니다. 매일 밤마다 기도를 드릴 때에도 저의 기도는 항상 똑같았습니다. “엄마, 아빠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에게 축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일 하루도 훌륭한 날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제가 올바르게 행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실 저는 제 부모님의 간증에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제가 원하는 것을 스스로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매일 밤마다 5분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저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눈물도 흘려보고 애교도 부려 보았으며, 심지어는

기적을 보여 주시지 않으면 의롭게 살지 않겠다는 위협까지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잠시 동안만이라도 천사가 저를 방문하게 해주시면 진실되게 믿는 자가 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물론 저는 그 잘못된 행위를 계속했지만, 그것이 나쁘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결국은 모로나이나 그 문제와 관련된 어느 누구의 방문도 받지 못했으며, 저는 나중에서야 한 가지 생각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이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저도 요셉 스미스처럼 기적적인 시현을 볼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을 뿐, 하나님이 저에게 신앙을 기대하신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받아들이기 힘든 개념이었습니다.

저는 교회에 대해 완전히 확실하게 알기를 너무나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제서야 겨우 제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제게 간증의 축복을 주실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는 기적을 그렇게 많이 기대하지 않으며, 참된 간증이 무엇인지를 이해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신앙이란 보이지 않는 참된 것들을 바라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1 참조) □

베를린 장벽이 마침내 무너지자, 독일 전역에 있는 성도들은

환호했다. 레만 가족은 그들이
누리는 새로운 자유를 잘
활용하고 있다. 세 형제인
마이클과 피터와 마티아스는
미국에서 선교 사업을 하기 위해
동시에 떠났다. “기적적인 선교
사업”, 12쪽 참조





이점은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섬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창세기 49:22)라고 요셉을 축복했다.
요셉을 축복하는 아론, 해리 앤디슨 작